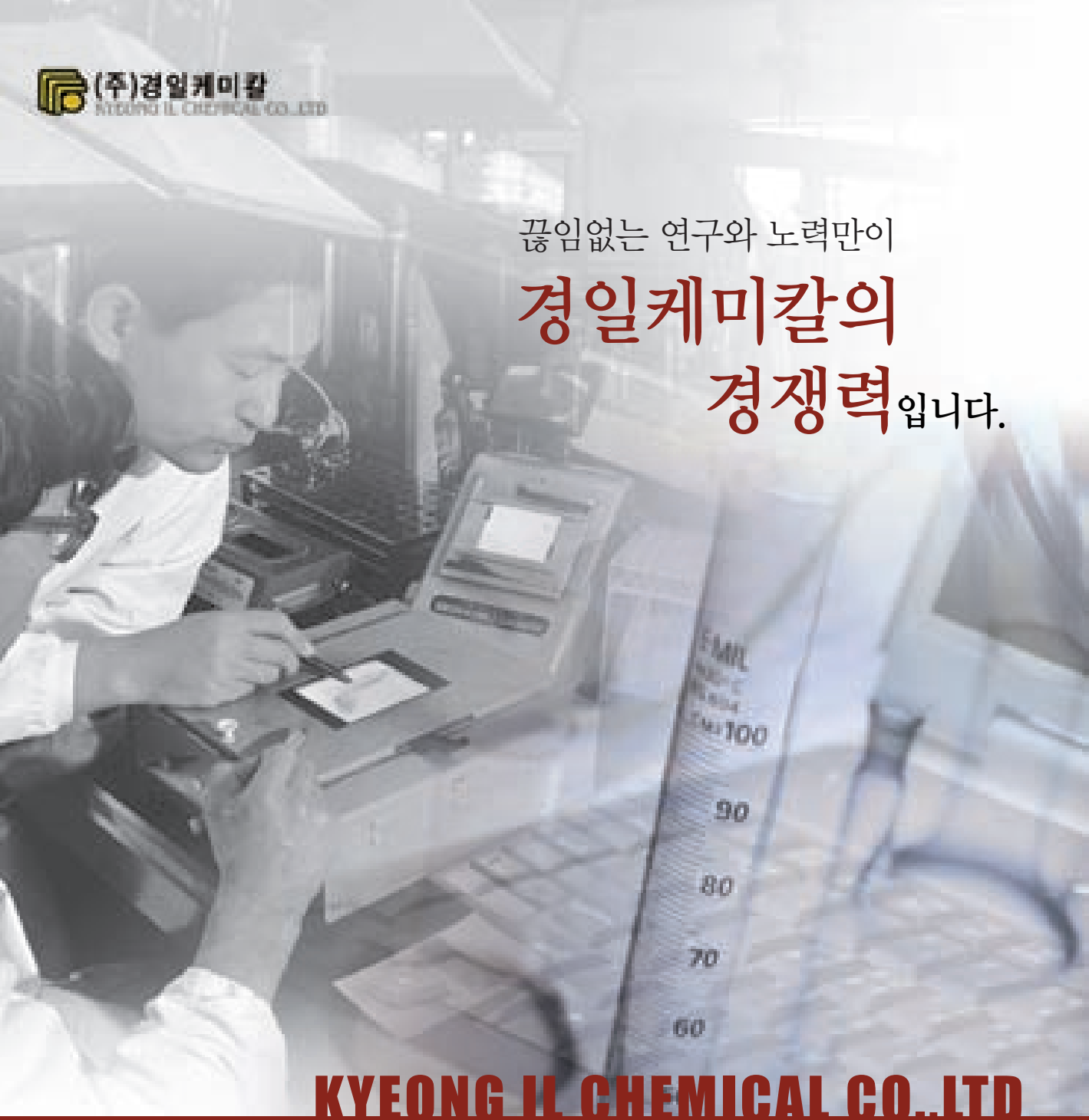


최 고 가 아 니 면 만 들 지 않 습 니 다

주식회사 경일케미칼은 1982년 8월에 경일화학공업사를창설하여 각종 **합성수지 및 폴리우레탄수지,** 특히 **피혁 섬유처리용 수성 및 유성 우레탄수지 접착제**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1992년에는 피혁 Finish 약품 개발 생산으로 천연피혁의 질을 한층 높여 보다 밝은 미래가 보장된 기업입니다.
기술혁신과 공장설비 증설 및 확장으로 1996년 1월에 주식회사 **경일케미칼**로 법인 전환하면서 앞서가는 많은 제품들과 많은 협력업체에 힘입어 제 2의 도약을 선언한 우수 중견기업입니다.
21세기의 떠오르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및 협력업체의 성장속도를 돕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고객만족 경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석불로 274 **Tel** | 031-943-3065 **Fax** | 031-943-3064 **www.ky21.com**

한국문화언어학회

2009
5

Vol. 202 May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함께 지속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풍요성 제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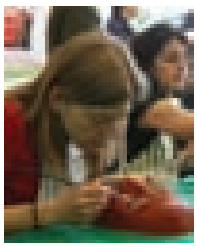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5
통권 202호 May
우리문화

02 칼럼
06 문화원 탐방
속초문화원
10 문화원 이야기
문화역사마을 기공식 _
제주 춘공식 · 진천 기공식
12 문화원을 듣는다
울주문화원
18 문화, 삶을 재생하다
한국의 도시재생 방향
22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케팅)
26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_
봄 여름사이 정동길을 걷다
32 다문화를 아우르는 5월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미래
34 하동야생차문화축제기행
38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42 기획
이름을 존중하게 하는[重其名] 작명례(作名禮)
48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5 우리문화 소식
60 신간소개
원장동정



표지 | 속초문화원 사자탈 그리기 체험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 · 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곽효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 . . . 21세기 대한민국 문화는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시작된다

한국을 살다 간, 그리고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느낀 잊을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지킨다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은 현재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를 대대로 계승하는 문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제 지인은 한때 '괴테' 에 매료되어 '괴테' 가 발 딛고 섰던 독일이라는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훌쩍 독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는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독일 문화는 물론, 그 나라의 언어,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문학에 대한 갈증이 깊었던 그에게 독일문화원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문화원은 오아시스 같은 문화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공간이자, 그 나라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 문화원은 어떨까요.

지역 문화원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 사람들이 문화유적지와 이른바 '맛 집' 을 찾지만,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문화원을 쉽게 찾지 않는 것은, 그곳에 보고 즐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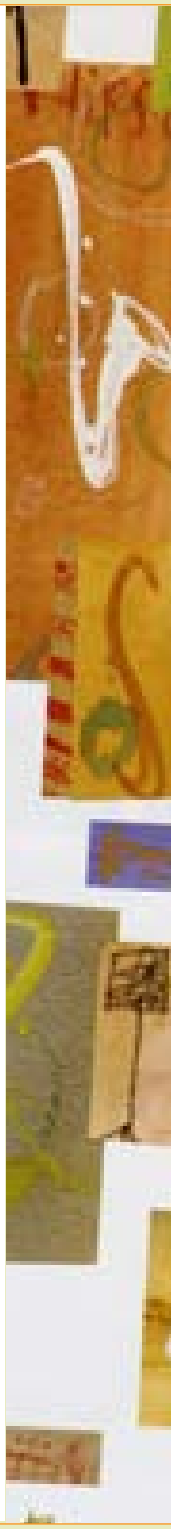
방마다 자생적으로 만들진 곳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지역주민, 그리고 시대를 연계하는 탯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 가면 누구라도 그 지역만의 의식(ritual)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정치 · 사회 · 역사 등의 살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는 곳, 단지 옛 유물에만 기대고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문화원을 찾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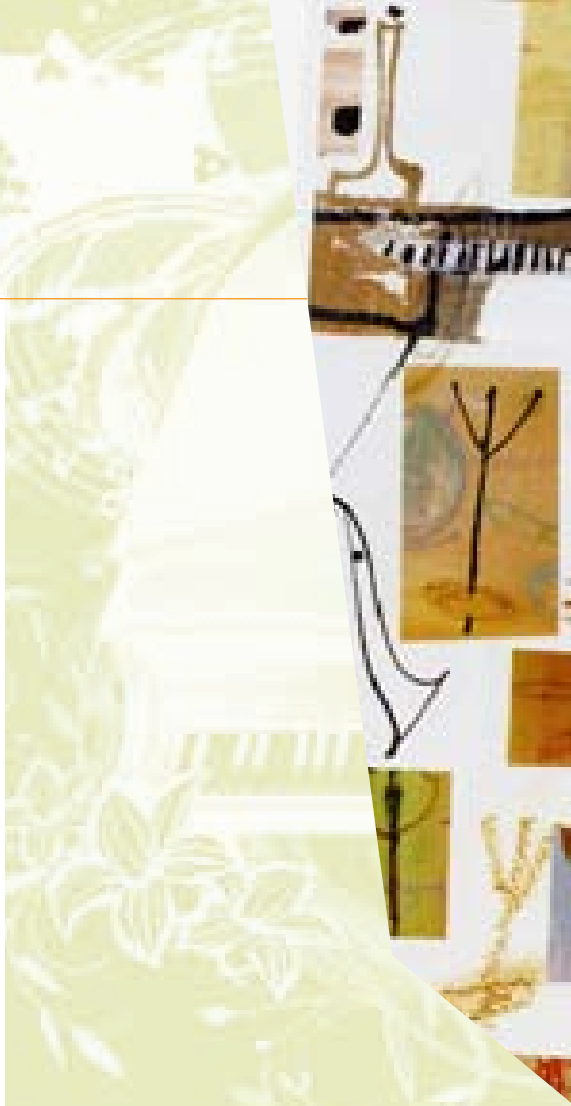
이제 문화원은 바뀔 때가 됐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지역 활동가가 되어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장소로 문화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안의 문화원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문화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문화원을 찾게 해야 합니다.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지역 탐방 교육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문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문화원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
문화원은 지역만의 무형문화, 요리, 서지, 풍습 등을 교육하는 교육의 공간이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는 지역만의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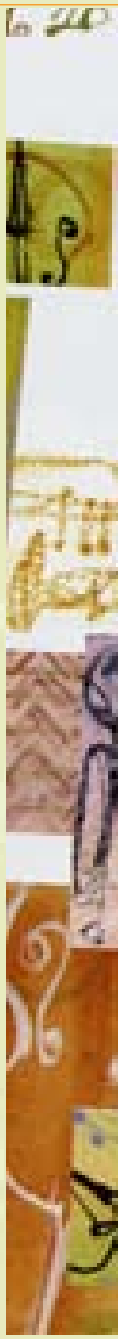
관리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문화의 아고라(agora)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원은 지난 2005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교육가로 양성하여 각 지역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차제에 문화원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허브와 지역의 문화 협의체로써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 기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문화 사업이 수도권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편중현상이 가속화되어 지방의 존립기반이 흔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 개발과 이들이 중심이 된 지역단위의 문화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각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문화축제, 문화상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백화점식 나열로 특색 없이 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여성회관 등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프로그램들을 일부 중복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도 한몫을 합니다. 문화원에서도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특별히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화체계를 지역문화 특성화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몫이며,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원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의 지원과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문화원은 한국을 살다 간, 그리고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느낀 잊을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지킨다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은 현재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를 대대로 계승하는 문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역량 있는 지역의 educator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성된 교육자는 동네의 문화를 알리는 좋은 '바이러스' 로서 중요한 매개자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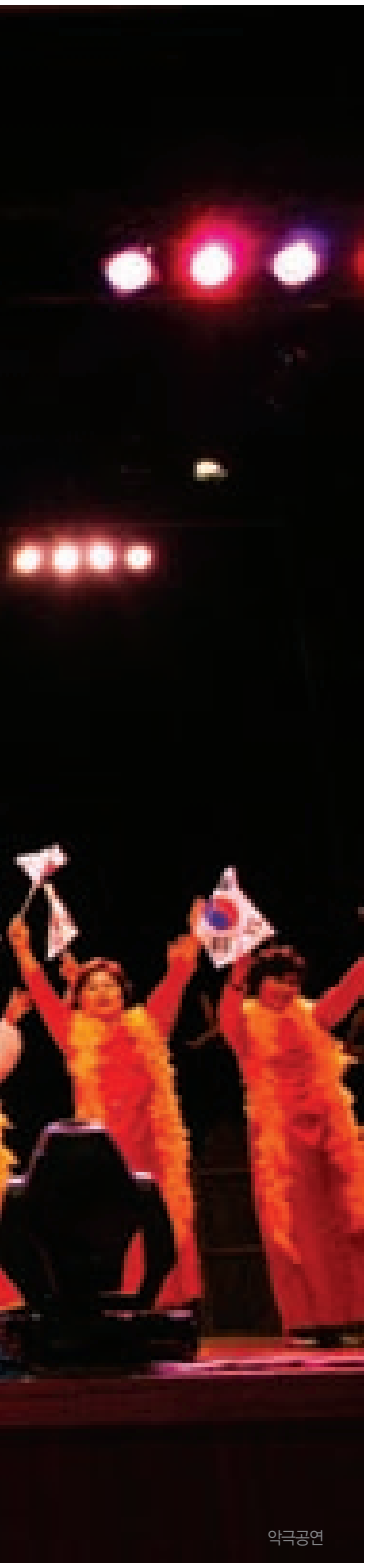
이제 우리의 지역문화원도

새롭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그 지역의 문화 · 사회 ·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혹여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더라도, 그들에게 문화원이 살아가면서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와 같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도록 합시다.

각 지역 문화와 문화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고귀한 땀과 꿈이 더 한층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원탐방
속초문화원



악극공연

조근조근 속삭이는 봄바다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운 문화원,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 원사 전경

속초의 바다내음은 달다. 짠내도 없이 비린내도 없이 가만가만 포근하다. 바다의 봄을 만끽하는 속초문화원으로 봄바람 따라 느릿느릿 가보았다.

강원의 특이한 동네, 속초

강원의 속초는 특이한 동네라고 운을 떼는 속초문화원의 노광복 원장이다. 1950년까지는 북한에 편입된 작은 촌락이었는데 6.25로 인해 경계가 생길 때 남한 땅이 된 사연 많은 땅이란다. 그 때만 해도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북의 고향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촌락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속초는 급작스런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1963년 5만명이 되면서 시로 승격되었다.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인 셈이었다. 그래서 속초의 문화는 함경도 문화라고 봐도 된다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길지 않은 도시이며, 그래서 더욱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속초에서 문화원의 필요성

이런 문화 속에서 문화원의 필요성은 더욱 컸다. 속초는 근방의 도시와는 다르게 향교가 없는 곳이다. 지금 시설로 말하자면 학교가 없다는 건데, 워낙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작은 도시였기 때문이다.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속속 학교가 들어섰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를 보급할만한 시설이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속초문화원은 1965년에 설립되었으나 해방 전후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문화를 나누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면면히 그 명맥을 이어 2009년에까지 이르러서는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명물이 되었다. 흔히 속초팔경으로 많은 풍경들을 이야기하지만 과장 조금 보태 문화원을 속초구경으로 말해도 될 법 하다.

1

2

3

“속초는 속초문화원,

속초의 주요사업

속초문화원의 1년은 꽉 짜여 물린 톱니처럼 정신없이 돌아간다. 서예, 장구초급, 사물놀이, 노래교실, 한지공예, 속초사자놀음연희반, 민요 등을 가르치는 향토문화학교 운영사업을 비롯, 문화유적답사가 이어진다. 역사가 짧은 속초의 자료를 모아 점진적으로 학술지 수준을 꾀하고 있는 속초문화 발행, 그에 맞추어 향토사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이할만한 점으로 청소년 특강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역의 청소년(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의미에서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 저명한 대학교수 또는 생활예절강사를 초빙하여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고. 더불어 효행청소년시상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하여 사회봉사 실적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해 격려한다.

속초문화원에서 속초 파헤치기

속초문화원은 속초의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많은 힘을 쏟는다. 속초도리원농악대 운영사업은 속초지방에서 연희되던 도리원, 교동농악을 모태로 재구성하여 속초농악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속초가락을 후세에 계승시키고 창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습하고 있다.

또한 도문농요 보존, 전승 운영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속초도문농요를 보존하고 지역의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이 문화재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향토문화의 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향유를 넘어 문화나눔 사절단으로

속초문화원에서는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악극 ‘아, 사랑일레라’ 무료 공연을 하기도 했다. 공연을 희망하는 각급 학교와 관공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가 다양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

행사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것. 이같은 활동은 실버예술단의 악극 '아, 사랑일레라'가 '2008 속초시노인일자리사업'에 '찾아가는 악극 공연'으로 참여하면서 가능했다.

이 사업을 통해 실버예술단은 1·3세대 소통을 위한 '속초시립박물관 공연'과 관내 복지기관 및 학교, 사회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한 '찾아가는 악극' 공연을 실시했다.

이 공연은 문화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진행되었다. 김인섭 사업과장은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노인들이 지역의 문화를 직접 만드는 일자리여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업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실버예술단 단원들이 단순한 문화향유를 넘어서 문화나눔과 문화사절단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회였다.

속초는 속초문화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것

이 날 속초문화원은 '실버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반의 교육을 마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20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실전으로 들어갈 어르신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향후 관광해설사로 양성될 이들의 생생한 역사 전달과 문화 이야기를 전달할 발판이 되는 날이었다.

이를 통해 노인유휴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자긍심도 함께 고취시켜 어르신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다.

속초문화원의 노원장은 이곳의 토박이다. 그만큼 속초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편. 스스럼없이 단점을 이야기하고, 또 장점을 더욱 키워내는 것처럼 속초문화원이 속초의 면면을 파악하고 키워내는 건 아마 시간문제일 것 같다.

따뜻한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듯 문화원에서 부는 문화의 바람으로 속초가 더욱 뜨거워지길 기대해본다.

속초문화원 노광복 원장

1. 땡땡땡 실버문화학교_악극
2. 북청사자놀음
3. 도문농요

문 화 원
이 야 기

서귀포 법환마을 '가꾸기' 꼬리표 떼고 본격 문화역사마을 시동걸었다

제주도 잠녀(潛女)의 생활문화와 고려 최영 장군의 역사적 발자취가 서려있는 서귀포시 법환동이 문화역사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서귀포문화원(원장 김병수)은 지난 4월 24일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 준공식을 갖고 4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이번에 신축된 어촌계회관의 현판식,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가 이어졌으며,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 김수완 서귀포시부시장, 전국 13개 지역의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장과 지역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준공식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새롭게 문화역사마을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의 자리이다" 면서 "마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마을의 지속적인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법환문화역사마을은 3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10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550평방미터의 어촌계회관 신축, 어촌계식당 리모델링, 법환광장 및 마을탐방로 조성 등 시설공사와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의 활용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법환마을은 국토해양부의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에 선정되어 2012년까지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되어, 문화역사마을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잠녀 바다에서 해조류나 패류를 채취하는 전문직업인 여성을 흔히 해녀(海女)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잠녀(潛女)라고 지칭했는데, 일본에서 쓰이는 해녀가 도입되어 현재 일반화되었다.

진천 보련문화역사마을 기공식 가져

진천문화원(원장, 남명수)은 지난 4월 21일 진천군 연곡리 보련마을에서 보련문화역사마을 기공식을 개최했다. 보련마을은 2006년 10월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문화역사마을로 선정, 14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문객 체험관 등 시설공사와 마을 환경을 살린 조경공사,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완료 후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화역사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여러 사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마을 방문객의 숙박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인 '안승갑 고택' 의 보수이다. 이집의 소유주이자 안승갑의 손자인 안장훈 마을이장은 문화역사마을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을에서 30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이집을 마을에 기탁했다.

맨손으로 백섬지기의 재산을 모았다는 안승갑(安承甲, 1887~1951)은 사재를 털어 만뢰학원을 세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30년대 인근에 큰 흉년이 들자, 연곡리 등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의 호세(戶稅)를 대납하기도 했다. 그가 학교운영을 위해 기부한 재산(임야 17만평)은 현재 마을 공동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명찬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부장

문화역사마을

운흥사지의 한 지 재 현

울산시가 지방화 시대 이후 옛 문화와 전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를 찾고 역사적 전통을 살릴 때 울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 이후 각 시도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도 이미 2003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많은 작품을 접수해 이중 20여 상품에 대해 지역 특성화 상품과 관광 상품으로 지정했다. 당시 상을 받은 상품들을 보면 도자기 형 액자와 칠보 소품 그리고 석공예와 은장도가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울산의 옛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먹과 한지가 지역 특성화 상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산은 공업도시가 되기 전 까지만 해도 먹과 한지가 유명한 묵향의 도시였다. 지역별로 보면 먹은 태화동이 유명했고 한지는 웅촌 지소 마을을 중심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먹은 종이 · 붓 · 벼루와 함께 문방사우로 불린다. 그런데 울산에서 질 좋은 먹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울산이 먹과 인연을 가진 것은 시기적으로 오래되었다. 울주군 두동면 사무소에서 봉계로 가다 보면

삽다리 못을 만나게 된다. 이곳이 못이 되기 전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이름이 '묵정' 이었다. 묵정은 이 마을에서 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동란 전후로는 태화동 역시 먹으로 유명한 마을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황해도 해주 출신의 김 씨 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울산으로 와 피난 보따리를 풀고 태화동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먹 제조 기술자였다.

김 씨는 태화동에서 사는 동안 먹 공장을 차려 놓고 먹을 만들었는데 이 때 인근 젊은이들이 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먹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태화동을 떠난 후에도 그동안 익힌 기술로 먹 공장을 만들어 먹을 생산했다.

당시 태화동 가구 수가 40여 가구에 불과했는데 먹 공장이 10여개나 되었다고 하니 태화동에서 얼마나 많은 먹이 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태화동 먹은 품질도 좋아 전국 명성을 얻어 서울 인사동에서 울산 먹 하면 고가에 팔렸다.

한지 역시 한 때는 울산의 명산품이었다. 울산에서 한지가 유명했던 곳은 울주군 웅촌면 운흥사지 인근 마을이었다. 또 울주군 두동면 삼정 지통골에서도 질 좋은 한지가 많이 생산되었다. 이중 운흥사지에는 지금도 한지와 관계되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고 또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도 많다. 아울러 운흥사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닥돌 역시 이 지역에서 많은 한지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운흥사의 한지 역사와 요즘 들어 한지 축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원주의 한지 축제를 알아봄으로써 울산에서도 한지를 울산 지역 특성화 상품으로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운흥사와 한지

신라 중기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운흥사는 조선 시대가 되면 단지 스님들의 예불 장소가 아닌 장경을 만드는 사찰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경에는 금강경에서 볼 수 있는 부처의 가르침이나 행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운흥사 장경은 이런 신앙적인 것 외에도 서장과 도서 등 사집 과정을 밟는 스님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경전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불교 4대 경전인 능엄경 · 기실론 · 금강경 · 원각경의 내용이 완벽하게 판각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제작된 장경이 이처럼 스님들의 교육 위주로 만들어진 것은 실제로 이 사찰에서 만든 책들이 스님들의 교재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찰에서는 많은 책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종이가 많이 필요했다.

운흥사 주위에는 종이와 관련된 것이 많다. 우선 지명을 보아도 그렇고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가 많다는 것 역시 이를 증명한다. 아울러 사역지 인근에 산재해 있는 닥돌 역시 운흥사에서 얼마나 많은 한지가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웅촌 마을에서 반계 마을로 오르다 보면 오른편에 저리(楮里)라는 마을이 있다. 그런데 이 지명의 '저(楮)' 자가 바로 닥나무 '저' 자로 옛날부터 이 마을에

문 화 원 을

닥나무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반계 마을의 옛 이름이 '지소(紙所)' 였다는 것도 이 마을에서 한지가 생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요즘도 운흥사지에는 닥나무가 많다. 펄프 원료가 되는 닥나무는 성장이 빨라 보통 1~2년만 키우면 잘라 종이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요즘 이곳 닥나무는 손을 대는 사람들이 없어 도로변의 가로수처럼 높이 자라 있다.

그리고 한 때 펄프를 만들기 위해 닥나무를 내려 쳤을 닥돌도 옛 모습 그대로 있다. 이곳에서 가장 큰 닥돌은 옛 대웅전 터 북동쪽에 있다. 이 돌이 자리 잡은 곳은 바로 개울가다.

운흥사에서 만들어진 한지가 얼마나 질이 좋았나 하는 것은 당시 이곳에서 생산된 한지로 만든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운흥사에는 '오가해' 라는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400여 년 전 이곳에 생산된 한지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지질이 좋아 400여 년 전 생산된 책 같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재질이 얇고 질기다. 이 때문에 아직 찢어진 곳이 없다. 지금까지 특별히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아직 좀을 먹지도 않았다.

이 책은 만들어진 후 한 때 장서각에 보관되었지만 장서각이 불탄 후에는 요사채에 그대로 두었다. 그동안 제대로 보관되지 못했던 이 책이 아직 온전한 것은 이 책에 사용된 묵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질이 좋기 때문이다.

일반 책의 경우 이 정도 수명이면 습기 조절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피거나 좀이 슬기 마련이지만 이 책은 지질이 좋기 때문에 지질이 변하지 않았고 벌레들이 근접을 못했다.

들 는 다

원주의 한지 축제

원주는 한지 축제를 열어 성공한 도시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빛나는 한지 문화를 육성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된 원주 한지 문화제는 1999년에 시작되어 지난해로 10회를 맞았다. 이 문화제는 5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전통 축제 30선, 8년 연속 강원도 우수기획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원주에서 한지 축제가 생기게 된 것도 지역 이름 때문이다. 원주는 오래전부터 한지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원주 역시 최근에는 한지 공장이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원주 시내에 있는 호저면(好楮面)의 '저(楮)' 자가 닥나무 '저' 라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옛 한지 문화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 오늘날 강원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원주는 중부내륙지방의 사질 양토가 풍부하고 햇빛이 많아 닥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풍토를 갖추고 있다.

또 원주는 조선 왕조 500여 년 동안 강원감영이 있어 당시 행정 관청 및 기관에 종이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한지 부락과 인쇄문화가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 한지는 오색한지로 공예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주 한지가 명성을 지닌 이유는 첫째로 닥나무 재배에 맞는 기후 풍토를 갖추었고 아울러 한지 생산에 꼭 필요한 깨끗한 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주 한지는 알맞은 기후와 환경에서 육성되어 품질이 우수한 원주 닥나무로 만들어져 수명이 오래가 700년을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주에서 벌어지는 한지 축제를 보면 조선시대 한지공예유물전과 한지작가 초대전, 한지 패션쇼가 있다. 또 한지를 주제로 한 한중일 심포지엄도 열린다.

전시행사로는 한지로 만드는 한 폭의 그림과 한지 풍속놀이 마당이 있고 한지 뜨기와 닥종이 인형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마당도 준비되어 있다. 공연 행사로는 한지 패션쇼와 인형극, 음악회 등이 열린다.

특히 지난해는 축제 10돌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많이 준비해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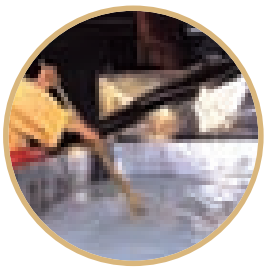
〈한지패션 쇼〉에는 한지 직물이 웨딩드레스로 제작되어 소비자들에 판매되었는데 인기가 있었고 매년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대한민국 한지대전〉도 과거에 비해 훌륭한 작품이 전시되어 멋지고 신비한 한지 예술의 세계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었다.

원주를 한지의 도시로 알리기 위해 열린 〈한지와 빛의 향연〉도 행사장 곳곳에서 열렸는데 특히 물위에 또 있는 연꽃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지 만들기

한지는 아직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그만큼 시

문 화 원 을 듣 는 다



간과 노동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

한지는 거두기와 찌기 그리고 벗기기, 담그기를 통해 만들어 진다. 거두기는 닥나무를 벤 후 가져 오는 것으로 닥나무는 보통 늦가을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 벤 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이 시기의 닥나무가 섬유질이 잘 생성되어 있고 수분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거두어들인 닥나무는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삶게 된다. 삶은 닥나무는 껍질을 벗기게 되는데 이 일은 옛날 길쌈을 할 때 삼나무 껍질을 벗기는 작업과 비슷하다. 다음으로 벗겨진 껍질을 물에 불리게 되는데 껍질을 물에 불리는 것은 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껍질은 보통 하루 정도 물에 불린다. 물에 불은 껍질은 잿물에 넣어 삼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잘 삶아진 닥은 솥에서 뜸을 들인 후 흐르는 물에 3~4일 정도 담가 둔다. 운흥사 계곡의 경우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삶은 닥나무를 물에 담그기가 편리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닥은 섬유질 외 당분, 화분, 기름기 등이 제거된다. 다음으로 티고르기를 해야 한다. 닥나무를 두드리기 전 껍질에 남아 있는 티는 모두 제거 되어야 질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있다. 티를 고른 후에는 껍질을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려야 한다. 닥 섬유는 물에 젖으면 유연성이 커지고 섬유끼리 접촉력이 높아져 다른 종류의 종이와 잘 붙게 된다.

닥나무를 두드리기 위해 밑에 까는 돌을 '닥돌' 혹은 '닥나무돌' 이라고 하는데 운흥사 인근에는 실제로 닥돌이 시냇가 인근에 많아 옛날에 이곳에서 닥나무를 많이 두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에서 떠낸 종이는 나무판 위에 놓고 그 위에 나무판을 얹은 후 무거운 돌을 올려놓거나 지렛대로 눌러 물기를 빼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말리는 일이 필요하다. 한지를 말리는 방법은 물에 젖은 종이를 따뜻한 온돌방 에 펴서 비로 쓸어가면서 말리는 방법과 혹은 벽과 나무판에 붙여서 햇빛에 말리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지를 말쑥하게 다듬게 된다. 아직 덜 마른 한지를 디딜방아 모양의 도침기에 여러 겹 포개 놓고 오랫동안 두드리면 매끈한 종이가 된다.

결 론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지는 한 때 울산의 대표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울산이 공업도시가 되면서 한지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지의 사라짐은 울산의 이미지도 바꾸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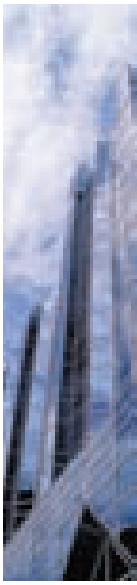
울산은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이처럼 질 좋은 한지의 생산으로 문향의 도시라는 이름을 들었으나 해방 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한지의 도시라는 명성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울산의 한지 재현은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는 작업이다.

원주처럼 울산이 옛 전통을 되살려 한지 축제를 개최하고 다시금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해 전국에 팔 때 한지의 전통을 이어 갈수 있고 울산이 단순히 산업도시가 아닌 문향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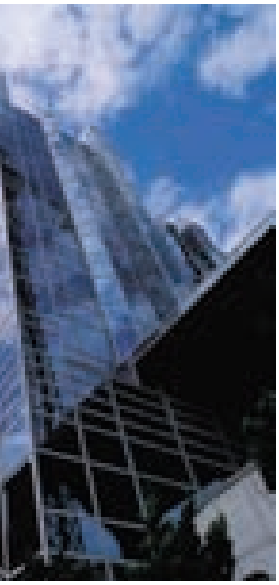
변동주 울주문화원 부원장

※ 위의 글은 울주문화원에서 발행되는 울주문화 제8집의 게재된 글입니다.

문화, 삶을 재생하다



한국의 **도시재생** 방향



도시는 다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환경의 적응여부에 따라 발전 또는 쇠락한다. 도시 안팎의 요구에 대응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의 일상적인 생명활동이 재개발이다. 그런데 20세기후반 중장대후(重長大厚)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구적 차원의 경쟁 심화에 따른 도시의 전략적 적응과정은 이전의 재개발과 구별되는 다른 특징을 지니며 도시재생이 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구체적인 비전에 입각하여 도시 내 쇠퇴 또는 저활용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의 각종 문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 비영리, 영리, 자발적 부문 등 사회 전 부문이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략적인 활동이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인 도시정비와 비교를 통해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도시재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활동인데 비하여 후자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통해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로부터 사업방식, 추진체제 등 모든 면에서 상이점이 발생하며, 도시정비가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인 데 비하여 도시재생은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의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도시정책 보다 높은 정책적 위상을 갖는다 하겠다.

〈표 1〉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차이점

구 분	도시정비	도시재생
목 적	사업구역의 교환가치 · 증대 개발 이익	지역의 사용가치 증대 · 도시 활성화
접근 방식	개별지구의 사업성	도시의 총체성
추진 주체	조합 · 건설업체 등 사업시행자	지역 거버넌스
사업 방식	전면철거 통한 물리적 개발	유 · 무형 자원의 종합적 활성화
사업 기간	중 · 단기	중 · 장기
공급 시설	단일 용도의 주택 또는 오피스	다양한 용도의 복합시설
정책 위상	도시정비〈주택정책〈도시정책〈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대두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지역발전 정책의 변화이다. 지역발전 정책이 과거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원,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위주의 외생적 발전으로부터 추진주체와 동인, 발전성과 귀속 등의 지역화와 문화, 관광 등을 중시하는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도시간 경쟁 심화 또한 도시재생 대두의 중요한 요인이다. 자본주의의 전일화(全一化)에 따른 국가간 제도적 장벽의 제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소멸로 도시는 세계경제와 직접 연결되어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관리자와 시민은 도시를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다른 배경으로 정보화 사회를 들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은 도시변화의 촉진제이기도 하다.

제조업의쇠퇴는 실업뿐만 아니라 많은 황폐 토지(wasteland)를 발생시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경제발전, 수명의 연장으로 레저, 문화, 교육 시간의 증가 및 유동인구 등 생활양식의 변화 또한 주택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도시재생과 다름 아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은 탄소저감형 도시공간 구조로의 전환과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및 사무실의 보급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도시재생의 배경이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자연환경 파괴와 교통량 증가를 수반하는 신도시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저항 증대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기성시가지의 개선활동을 증대시킨다. 1995년 지자제의 도입 이후 선거를 통한 지역 권력의 선출은 도시정부의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이는 도시재생의 활성화로 나타난다.

도시재생은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4부문의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물리적 재생의 범위는 토지와 건조환경, 열린 공간과 물, 통신과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과 서비스, 환경의 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도시와 근린주구의 물리적 외관과 환경의 질은 도시의 번영과 삶의 질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도시의 기업과 시민의 자존심이기에 물리적 재생은 도시재생의 근간을 이룬다. 경제적 재생은 도시 내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급측면에서는 도시 내의 생산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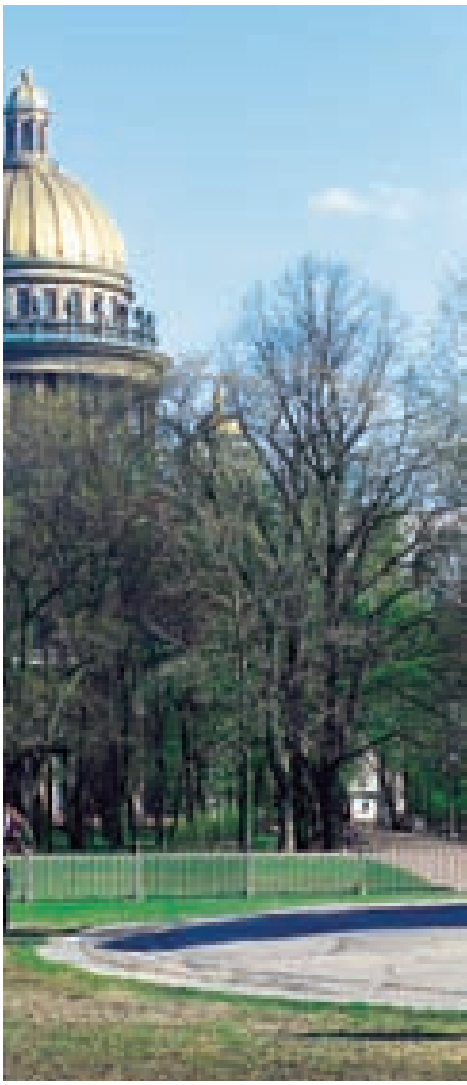
도시재생은 일상 속에서 **삶의 조건의 개선**이며,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거대한 사업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사업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동의 증대하는 것이다. 경제적 활성화 없인 도시활성화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재생이 중요성은 작지 않다. 사회적 재생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고용, 보건,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사회적 통합 없는 도시는 실패한 도시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문화적 재생은 역사유적 재단장, 문화공간 조성, 전통문화공연 및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현대 도시는 편의성 못지않게 고유한 특성이 요구되며, 도시에 자신만의 색깔을 부여해주는 것이 문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재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 또한 풍부하기에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비수도권의 쇠퇴 및 국토불균형 발전, 경제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종합처방이 될 수 있다. 우선 도시재생은 국토균형발전을 가져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토불균형은 한국의 오랜 현안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도심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가능하다. 도시재생은 지속가능성의 구현 방안이다.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그에 뒤이은 경제위기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재생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조건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도시재생은 우리도시가 안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쾌적성, 효율성, 편의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도시재생은 주거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개선, 확충 등 많은 지역단위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렇듯 도시재생은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관통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국정의 중심에서 보다 상위의 명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바로 지역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지역 역량이란 지역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해나가려는 의지와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역량 강화는 도시재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



며, 국가는 지역이 자신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추진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유도 ·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도시재생사업단 1단계 보고서). 이런 관점에서 2009.2월 창립된 마산 도시재생 민관협의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마산도시재생위원회를 창립하여 도심공공미술조성 사업,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던 지역 학자, 지역 상인 및 지역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도시정부와의 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이전의 관주도적 협의회와 달리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조직해 냈다는 점에서 한국의 도시재생 지역역량 성장과정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시재생은 일상 속에서 삶의 조건의 개선이며,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거대한 사업보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사업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 시 계획의 과정에의 참여 용이성,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 사업 성과의 광범위한 향유, 실현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초 경전철 건설로 추진되던 철도 폐선 부지를 지역주민들과 지역환경단체들이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도심공원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광주의 푸른길 조성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은 장소성을 중시하며 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도시재생사업단 1단계 보고서). 도시재생은 훌륭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소가 지닌 기존 자산에 대한 이해와 그 장소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이 잘 결합될 때 가능한 것이다. 도시를 디자인 하는 것은 이런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장소는 동질적이지 않으며 각각의 특징을 지닌다. 나름의 개성을 가진 장소들이 이어져 있는 도시는 생동감이 있고 매력적이다. 편안하고 세련될 지라도 획일화된 장소보다는 평이할지라도 역사와 경험을 지닌 장소를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다. 이런 깊이 있는 장소성은 성형수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소가 지닌 역사성이 잘 발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경관의 특징을 활용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발전 패턴을 수용하고, 그것에 맞는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전국의 광역시와 시군구에 광범위한 지역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역량 형성과 발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다. 더욱이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장소성은 그 지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대되는 역할을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주관수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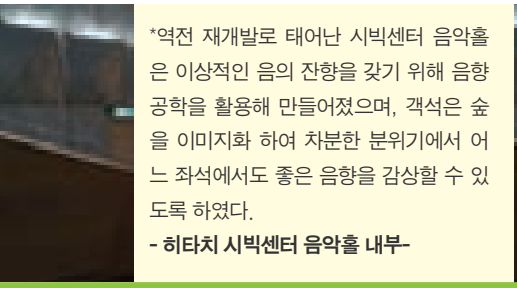
문화, 삶을 재생하다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케팅)

일본 히타치시 『시빅센터』와 미토시 『미토예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는 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도시는 문화를 구축하고 키우는 곳이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이제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며,
침체된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선진국의 도시정책은 단순히 문화시설을
하나의 물리적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공간과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체를 패키지화된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공공, 민간 등의 개발주체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재정, 운영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역전 재개발로 태어난 시빅센터 음악홀은 이상적인 음의 잔향을 갖기 위해 음향공학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객석은 숲을 이미지화 하여 차분한 분위기에서 어느 좌석에서도 좋은 음향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히타치 시빅센터 음악홀 내부-

9,300㎡ 광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파티오 광장』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분수와 폭포, 그리고 밤에는 삼색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 신도시광장-

1. 히타치시의『시빅센터』

히타치시는 인구 16만 명의 시로 한때 철광 산지로 유명했으나 철광업 쇠퇴로 경제가 시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시로 낙인 찍혀 점차 활기를 잃어간 도시였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히타치시는 문화 판축을 시도하였으며 활용 소재로 음악을 선택하였다. 즉, 히타치 역전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칙칙하고 낙후된 도시이미지에서 '음악도시 히타치' 라는 분위기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히타치 시빅센터는 (재)히타치시과학문화정보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시민생활 및 히타치시의 미래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홀, 도서관 시민교류센터, 고도정보센터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시빅센터 앞 시민광장은 각종 이벤트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모여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였다.

여기에는 물 · 소리 · 빛의 연출장치, 이벤트 광장, 스포츠, 카페, 관람석 등으로 집객성을 풍부하게 하는 공간 구성에 많은 배려를 하였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1992년부터 '히타치의 봄' 음악제를 개최함으로써 히타치 시민들은 음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히타치시는 침체된 도시를 재생시키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문화시설 건립을 중심으로 한 도심개발(역전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서구의 구 공업도시에서 볼 수 있는 도시정책으로 일본에서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히타치시가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음악' 이라는 명확한 주제를 선정해 시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결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히타치시빅센터는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내보내는 전진기지로서 '문화도시만들기' 를 위한 중심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예술과 전통예능 등 문화적으로 느끼고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민주체로 실시하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민에 뿌리를 두고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미토예술관은
지역과 도시민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시설을 통한
도시마케팅의 성공으로 이어져
도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그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히타치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관람객의 증가와 광역교류 인구의 확대에도 성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재원확충의 적극적인 수행은 자주사업의 질 행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해주고 있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시빅센터가 도시재생의 결정적 역할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중심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수도권 인접 도시로서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찾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 제공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시설을 도시마케팅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미토시의 『미토예술관』

미토시는 인구 26만 명의 수도권의 작은 도시이다. 이곳 미토예술관은 일본 지방문화시설 중에 으뜸으로 치는 훌륭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원래는 협소한 시립 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활용해 지은 건물로서 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미토시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10여년을 거친 각종 조사와 시민 의견 청취를 통해서 예술관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미토시(水戶市)는 지명의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풍부한 물을 배경으로 마을이 생겨났으며 전국의 도시 가운데에서도 굴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시내에는 도쿠가와 시대의 사적을 비롯해 많은 명소와 유적이 있으며, 특히 '해락원' , '홍도관' 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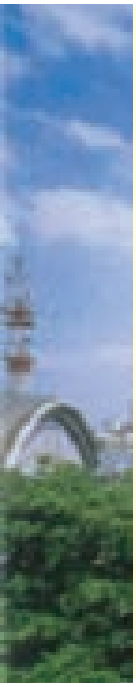
뛰어난 자연 경관 안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온 미토시는 1989년 시제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시개성을 창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예술관 건설을 추진하였다.

미토예술관은 수도권 지방도시에 위치하면서도 운영의 기본이념은 매우 진취적이다. 우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관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평가와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를 위한 음악, 연극, 미술 각 분야의 전용 공간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예술관 자주기획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토시는 당초부터 (재)미토시예술진흥재단을 설립 · 운영하고 있고, 재정 측면에서는 미토시가 매년 예산의 1%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였다. (매년 10억엔 정도) 이는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과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미토예술관은 음악, 연극, 미술의 주요한 예술분야에서 지역문화발전을 키워 나갈 시설로서 단순한 교양으로서의 문화예술 제공의 장에 그치



미토예술관은 미토시가 시로 승격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했다. 상징적인 형태로 동측에는 미토시 백주년을 기념하는 높이 100미터의 탑을 건립하여 미토예술관의 심볼뿐만 아니라 미토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다.

서쪽에는 ACM극장, 콘서트홀(ATM)이 북측에는 현대미술 갤러리가 있다. 각 분야에 각각의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각각 전용공간을 가짐과 동시에 상호 크로스오버하는 시설로써 미토의 예술활동의 본거지로, 또 세계에 그 활동을 발신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 미토예술관 -

지 않고 시민스스로가 배우고, 창조하는 활동으로 확대하여 도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비롯해 각 방면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적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미토예술관은 공공시설 정비로 시작하여 새로운 도시거점으로 주민통합을 이루어 냈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에 뿌리를 두고 문화활동을 전개해 나나고 있는 미토예술관은 지역과 도시민의 문화적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시설을 통한 도시마케팅의 성공으로 이어져 도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시설은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는 매개역할로서 활용되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주제를 선점하여 도시마케팅 요소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도시비전과 목표를 정해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업가적인 정신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도시전체가 문화적인 감성이 풍부해 질 때 성장 ·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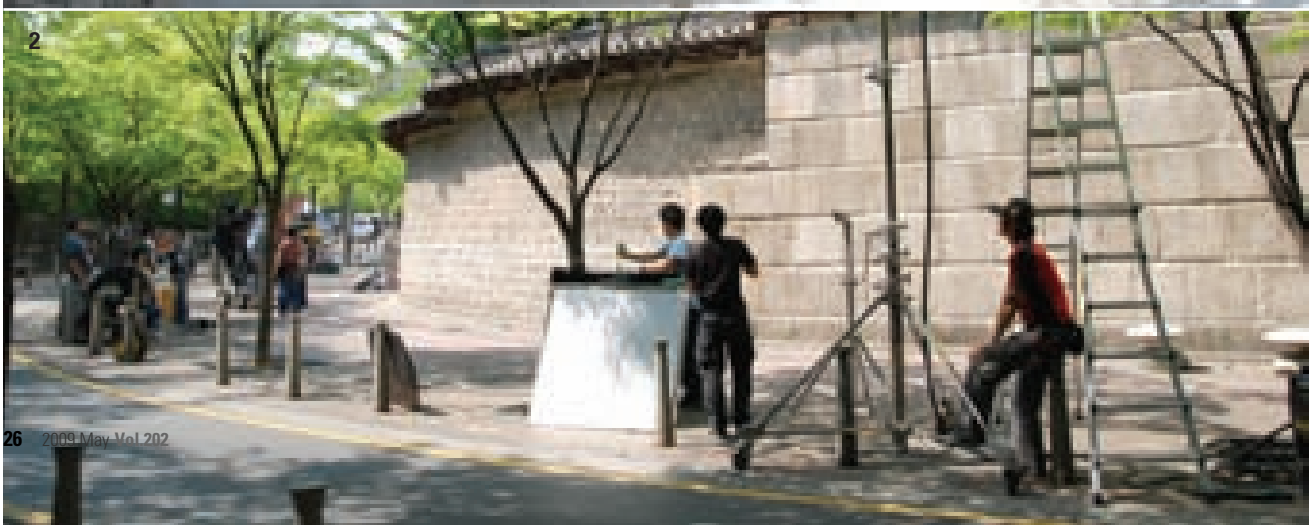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과장

문화, 삶을 재생하다

봄 여름 사이, **정동길**을 걷다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1


2

서울시에서 2007년 봄,
도시갤러리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지정한 장소에 공공미술 공모를 하였고
퍼블릭샬렛 과정을 통해 디자인로커스와
커뮤니티 디자인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멋진 신세계, 꽃이 피다' 라는 주제로 정동길을 꾸몄다.
서울시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늘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거리였고,
또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 근대사를 품은 작고 좁은 길,
봄과 여름 사이 문득 정동길을 걸었다.

7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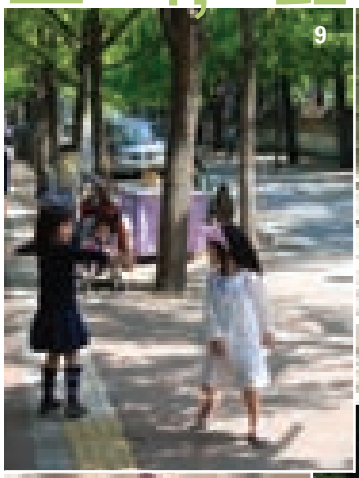
5

6

1. 현대식 건물의 입구에 기와문이 멋스럽다.
2. 정동길에서는 촬영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3. 서울시립미술관
4. 조약돌 모양의 의자가 재치 있다.
5. 길을 걷다가 LED를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
6. 정동극장
7. 서울시립미술관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8.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돌기둥이 꽃기둥으로 변신
9. 엄마와 걷는 아이들은 마냥 신나서 뛰어다닌다.
10. 나무들은 돌담 위에 그림자 그림을 그린다.
11. 길에서 정신없이 뛰노는 아이
12. 나무가 푸르른 정동길
13. 근처에 학교가 있어 문구점이 열려있다.
14. 구 러시아 공사관으로 올라가는 길, 옛 흔적을 말해준다.

문화, 삶을 재생하다

8



9

10

11

12

13

만보객의 거리, 정동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행자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만큼 이곳은 보행자, 산책자를 위한 길이다. 차가 다니는 건 다른 도로와 다를 것이 없지만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곳은 보행자 우선이다. 건널목이 없어도 사람들은 으레 자연스레 차도를 건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차는 속도를 낮춘다. 서울 같지 않게 이 길에서만은 사람의 걸음이 우선된다.

오히려 이 길은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에 곤혹스러운 곳이다. 갑자기 시작된 일방통행길을 보아도 그렇고 어디 마음에 드는 곳이 들어가려고 해도 주차시설이 변변치 않아 당황스럽기 일쑤다. 이곳은 그만큼 만보객의 거리다.

정동길, LED의 수다

거리를 걷다보면 담벼락에 낯선 모양의 LED 막대가 눈에 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때 설치되었던 것으로 개화기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서구 열강의 대사관 영사관 같은 공관이 자리 잡으며 어느 길보다 생소한 언어가 가득했던 길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리라. 등 · 하교 길의 학생들의 시선을 무심히 받는 이 설치물은 백 년 전 개화기의 수다를 엿볼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여러 텍스트들이 눈에 띈다. 한적한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사소하고 작은 수다를 들려준다. 엿듣는 수다가 그렇듯 스치는 시선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간간히 보이는 단어들로 설핏 뜻 모를 이야기에 참견을 해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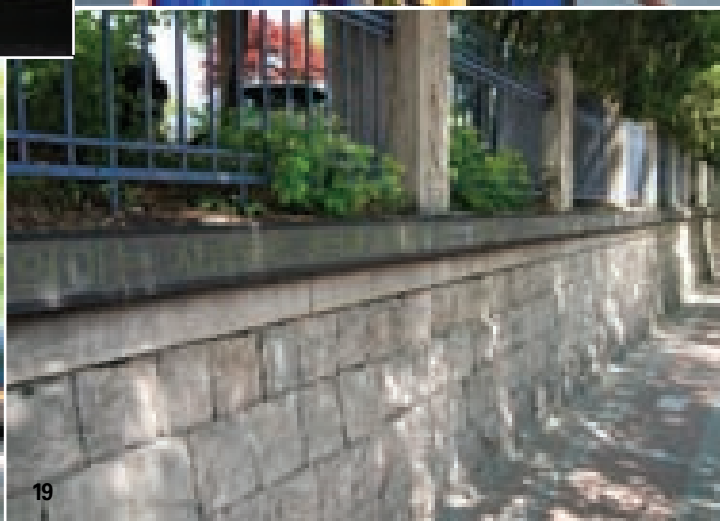
15. 수문장 교대 의식
16. 정동교회의 모습
17. 수문장 교대 의식 전에 한 외국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19. 정동길에서 제일 수다스러운 LED 설치물

15

16

17

18


19

시간을 덧입은 거리를 걷다

도시는 참 빨리 변한다. 더욱이 서울은 그 속도가 더욱 빠르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스러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한다. 그런 길 중에 이런 길 하나 남겨두어도 좋지 않을까. 한국 근대사를 간직한 정동길은 당시 열강의 공관이 하나둘 들어서며 서구의 문명을 보여준, 그야말로 신세계의 거리이기도 했고 을사늑약이 체결된 중명전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증명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오랜 나무들이 때때로 긴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 그 그늘을 따라 긴 담벼락이 길게 줄지어 있는 곳, 그 담벼락의 바랜 꽃그림을 손으로 짚어보게 되는 곳… 그 길 사이에서 지난 백년간 재생되었던 시간을 되돌아본다. 시간을 덧입은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다 문 화 를 아 우 르 는 5 월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미래

따사로운 봄날 아지랑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에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격려의 박수와 사랑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들의 후손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증가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로까지 얘기가 오간다. 출산률이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연령층의 구조적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반만년 긴 역사속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순혈(純血)을 세계만방에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굳게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세계적 질서의 흐름은 쉽게도 대문을 활짝 열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다.

어릴 적 방황을 끝내고 소외당하는 모든 것을 극복했던 것이다. 아버지도 케냐인, 어머니는 코카서스인 인도네시안의 양부와 이복동생, 그 속에서 견디면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혼혈아로 태어난 오바마가 자신과는 피부가 다른 백인친척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했던 것은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단일민족의 전통이 깨졌고 외국여성과 결혼한 커플이 15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인종차별과 가부장적사고, 돈 주고 사온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대부분 학대와 횡포로 가출해도 고향에도 갈수가 없고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 버티기로 일관하는 추세다. 필자는 수년전 결혼상담소협회 중앙회 이사로 있으면서 그들의 결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견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처한 실정을 간파해왔던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고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정자들은 이들에 대한 정책을 가끔은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정책과 행정이 그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지 못함은 사실이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화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엉뚱한 단체에서 맡아 그들에겐 그림의 떡처

한국우리문화연합회 주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행'에 참가한 김행천 (전남 강진군)부부

럼 느껴질 뿐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온 개인의 욕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있는가? 노동과 자본이라는 계급적 문제로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현실과 노동력의 착취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았는가? 인종적 차별감이 팽배된 사회의 현실상황을 어떤 교육 방법을 통해 고쳐갈지 고민해 보았는가?

우리사회의 문화적 관용을 통한 이들의 적응과 삶의 인도 방향을 고찰해 보았는가? 그들의 모국어나 종교 또는 가치관 등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이들 모두의 기본 인권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보호하면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문화원이라는 특수기관을 이용하여 정책을 펼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문화 속에 젖어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서 문화원만이 잘해낼 수 있는 사회 통합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국제결혼가정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고립과 정체성은 급속도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불과 5~6년 후에는 문화적 분리현상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직시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프랑스 속담이다.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뜻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친불친에 따른 정치와 행정이 아닌 객관적이고 형평적인 정치적 도덕성을 갖고 자아를 버릴 때 비로소 정치가 바로 선다는 뜻으로 안다.

사람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최선의 봉사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후세에 빛나는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리라.

따사로운 봄날 아지랑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에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격려의 박수와 사랑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들의 후손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

※ 위 글은 서산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스산의 숨결 305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다 문 화 를 아 우 르 는 5 월

다문화가정 26가구 80여명,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행

베트남 등 이주여성, "하동 녹차와 모국 차맛 비교해요"

1

지난 5월 2~3일 캄보디아, 베트남 등 우리나라에 시집 온 이주민들이
녹차만들기와 다도 등 한국의 차문화를 체험하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행' 을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기행은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20개 지방문화원에서
'2009년 이주민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업에는 각 지방문화원과 대학교의 전문 한국어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한국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이해를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한편 우리회는 이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가정 80여명과 함께 지난 5월 2~3일 하동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하동야생차문화기행' 을 실시했다.
이어 5월 3일과 5일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최한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에 초청되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의 음식체험을 추진했다.
편집자 주

2

3

4

지난 5월 2~3일 캄보디아, 베트남 등 우리나라에 시집 온 이주민들이 녹차만들기와 다도 등 한국의 차문화를 체험하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기행' 을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여행은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 행사는 '2009년 이주민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문화원(부산금정 · 여주 · 강릉 · 조치원 · 강진 · 부안 · 사천 · 남해)에서 다문화가정을 추천받았다. 태국과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출신의 이주여성과 남편, 자녀와 친정부모 등 87명이 참가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남편만을 믿고 한국에 시집 온 아내에게 부모와 오빠 그리고 남편 역할까지 하면서 사랑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하동차문화기행은 하동군 악양면 매암차박물관을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회, 소설 '토지' 의 무대인 최참판댁과 평사리 일원 탐방이 있었다. 또 하동차문화센터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녹차를 덖고 비벼서 완성된 녹차를 갖고 가기도 하고, 남편과 자녀 등 다문화가정 전체가 여유있는 다도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캄보디아와 중국의 친정부모도 참석

이날 참가자 중에는 사전에 조사된 참석자에는 없었던 이주민의 친정부모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부안문화원의 두염연씨(28, 중국)의 친정어머니는 한국에 시집온 딸을 보기 위해 왔다가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5

1. 다문화가정의 다도체험
2. 녹차시음을 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3. 남해에 시집 온 딸(왼쪽)을 보러 한국에 온 캄보디아의 친정부모
4. 이주민을 위한 다원 음악회
5. 사천문화원에서 온 베트남 이주여성의 찻잎덖기 체험

또 남해에서 온 카오마니씨(25, 캄보디아)의 친정부모인 슬레카오씨(45) 부부도 같은 경우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던 슬레카오씨는 첫째딸은 남해에, 둘째딸은 울산에 시집보냈다. 이번에 두 딸을 보기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한다. 남해문화원 사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카오마니씨의 남편은 어린이날 행사준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남해에서는 3명의 친정어머니가 참가했는데, 그들은 이주민 모국의 어머니가 아니라, 남해문화원의 임원이거나 회원들이다.

하희숙 남해문화원 사무국장은 "2004년부터 문화원 여성회원과 남해에 시집 온 이주여성 간 '친정 어머니 결연맺기' 를 추진하고 있다." 면서 "한국의 친정어머니들은 모녀관계를 맺은 이주여성이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다" 고 했다.

"대접 잘 받고 갑니다.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이날 부안문화원의 김경성 사무국장 등은 인솔해 온 다문화가족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거나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바빴고, 여주문화원의 한국어강사 진재필 씨는 노상 젖먹이 어린애를 안고 다니는 모습에서 이주민 사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었다.

사천문화원 공대원 사무국장은 "이주민한국어문화이해 교육이 있는 날이면, 원장님과 직원들이 갓난아기를 안고 다니느라 문화원 업무가 마비된다" 며 "이주민 사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했다.

강진군 군동면에서 농삿일을 하는 김행천 씨(49)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대접 잘 받고 갑니다' 라면서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불러달라' 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주민문화향수실태조사(2008년)' 에 따르면 이주민이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33%)을 꼽았으며, 여행에 따른 만족도(77%)와 지역축제에 참가한 만족도(90%)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주민의 여가활동으로 TV시청이나 휴식(65%)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한국으로 이주후 여가생활 빈도가 모국보다 적게한다(66%)는 등 여가활동 기회가 매우 낮게 조사되어, 다문화가정의 여가문화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명찬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부장

다 문 화 를 아 우 르 는 5 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펼쳐진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5개 문화원의 이주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다문화 요리 퍼레이드

지난 5월 2일(토)부터 5일(화)까지 4일간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앞마당에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학술포럼, 특별 전시, 체험 부스,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4일간 생동감 넘치는 행사가 계속되었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들과 만난다는 점에서 여타의 축제와는 차별화되었다. 2일 일본의 날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 러시아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날로 이어져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세계 각국의 음식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축제를 성황리에 이끌었다. 3일(일)은 지방 다문화가정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흥 · 홍천문화원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조치원문화원은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또한 축제의 마지막 날인 5일(화), 남해문화원은 베트남 여성 들로 구성된 한국전통부채춤 공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근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시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급증하였으나 실제적인 이해가 부족해 이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가 일회적인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지속되는 '이해의 줄기' 이기를 기대해본다.

음식부스를 운영했던 한 이주여성은 "힘들었지만 함께 즐기며 웃는 4일간의 축제를 계기로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서는 일, 먼 길 같아도 문화원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라며 힘든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날의 잔치 속으로 함께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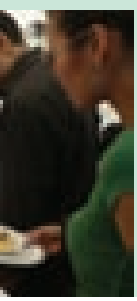
1 남해문화원의 '부채춤 공연'

5월 3일 〈중국의 날〉
"이 많은 재료 남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 팔릴 줄 몰랐어요"

아침 9시에 서울에 도착하려면 새벽에 일어났을 텐데 버스에서 내리는 다문화가족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전날 비가 내려 걱정을 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구름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아래, 어린이 박물관 앞마당에 설치된 음식체험 부스에서 이주 여성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온 음식 재료들로 요리를 시작했고, 가족들은 체험 쿠폰을 들고 민속 박물관을 관람했다. 관람객이 많을 것이 예상되어 5시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홍천 문화원과 시흥문화원이 먼저 요리를 선보이고 그동안 조치원문화원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통 중국집에서 맛보기 힘든 사천 딴딴면과 훠궈, 지엔빙을 보고 사람들은 천원이라는 싼 가격에 하나씩 맛보며 외국의 향취를 느꼈다. 연탄불에 바로 구운 양고기 꼬지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였다. 11시에 판매를 시작한 음식들이 1시가 채 되기 전에 동이 나 버리자 조치원 문화원에서 준비한 건두부볶음과 닭볶음을 바로 내 놓았는데 이 역시 2시간만에 동이 나 버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부채춤을 배운 베트남 여성들이 보여준 무대는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렀다. 조치원문화원의 요리 책임자인 강향란(중국, 45세)씨는 "재료가 너무 많아서 다 팔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다 팔릴 줄은 몰랐어요"라며 즐거운 표정이었다. 요리 참가자들은 자기 나라의 요리를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재미에 뜨거운 불 앞에서도 연신 웃는 표정 이었다. 이날 3개문화원 134명(요리 36명, 체험 및 교육 98명)의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체험과 관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아침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다.

5월 5일 〈동남아시아의 날〉
한국, 그것도 국립 민속 박물관에서 동남아를 맛보다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남해문화원과 강진문화원은 부스 운영 시간을 맞추기 위해 행사 하루전인 4일 오후 경복궁에 도착했다. 6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 여행을 한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궁인 경복궁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5일 아침, 일찍 민속박물관에 도착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동남아시아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해문화원에서 온 정일이란 4살 꼬마 친구는 엄마도 찾지 않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민속박물관을 접수(?)했다고. 며칠 전 백일잔치를 치르고 온 갓난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하얀 웃음이 행사장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필리핀 떡인 포또, 우리나라 잡채와 비슷한 빤싯, 베트남의 고이쿠온(월남쌈)과 반쎄오는 만들어 내는 대로 팔려부스 안은 음식 만드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어린이날인 덕에 유난히 관광객이 많았던 오늘, 음식이 빨리 떨어져 늦게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오늘은 남해문화원에서 펼친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전통 부채춤공연이 축제를 더욱 빛내었다. 농번기에 부족한 연습량을 서울에 도착한 저녁, 피곤한 몸으로 숙소 복도에서 보충한 이들의 열정이 빛나는 무대였다. 한국어 · 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부채춤을 배운 베트남 여성들이 보여준 무대는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참석한 42명의 참가자들은 피곤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축제로 신난 아이들의 웃음과 춤으로 즐거움 가득한 귀가길 이었다는 뒷이야기에, 이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한국인들에겐 다른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런 축제가 자주 열리길 기대해 본다.

이민아 한국문화원연합회 다문화 사업 담당

기 획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름을 존중하게 하는 [重其名] 작명례(作名禮)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1. 옛 가정의례의 작명절차

옛 가례(朱熹의 家禮~四禮便覽)의 사당조(祠堂條) 유사즉 고(有事則告, 집안에 통상적 생활 이외의 일이 있으면 조상에게 아뢴다)에 보면 "아이를 낳았사옵니다. 이름은 무엇이옵니다.(生子名某)"고 아뢴다고 했다.

아낙의 도리를 정한 예기(禮記)의 내측(內則)에 보면 "아이를 낳은 지 3달이 되는 그믐에 날을 골라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뵙게 하고 아버지는 아이의 오른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이름을 지어 부른다.

(內則 子生三月之末擇日 妻以子見于父 父執子之右手 咳而名之)"고 했다. 이어서 "여기에서 아버지는 손자에 있어서는 할아버지께 뵙고 할아버지 또한 이름을 부르는데 방법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뵙는 것과 같다.

(凡父 在孫見于祖 祖亦名之 禮如子見父)"고 했다. 미루어 옛 가례에 작명례의 면모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경우가 드물어 별로 볼 수 없었던 것이다.

2. 작명례의 목적

작명례는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重其名]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의 육신은 유한(有限)하지만 그 이름은 영원한 것이다. 때문에 사람은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삶을 조심하는 것이고, 남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름을 지어서 부여할 때도 일정한 의식을 갖추어, 부모는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로 다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명례는 이름의 글자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은 이름을 아이에게 부여해 주는 절차를 엄숙 · 경건하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1백년도 못가는 육신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이 온갖 짓을 다하는 사람도 영원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는 하는 일이 없다. 때문에 요사이 남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3. 우리나라 성명(姓名)의 특수성

우리나라는 대개 성과 이름으로 성명이 지어지는데 성(姓)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므로 따로 지을 필요가 없으나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게 짓는다. 그 이름은 대개 2자로 되는데 그 중의 1자는 성씨에 따라 정해진 항렬(行列)자를 따르므로 그 사람의 고유적인 이름은 1자이다.
항렬자만 보아도 어느 성씨의 몇 세(世)인지 구분이 되고, 어떤 경우는 어느 성씨의 어느 파(派)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항렬자를 쓰는 것이 그 뿌리를 밝히는 것이 된다. 항렬자를 이름에 쓰는 것이 우리나라 이름의 특수한 부분이다.
항렬자의 종류는 성씨에 따라 다른데 크게 다음 몇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 글자의 획에 金, 水, 木, 火, 土가 든 글자를 차례대로 반복해서 쓴다. 金은 鉉, 水는 永, 木은 洙, 火는 容, 土는 中, 다시 金은 善과 같은 것이다.

② **십간법(十干法)** | 글자의 획에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가 든 글자를 차례대로 반복해서 쓴다.

③ **십이지법(十二支法)** | 글자의 획에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가 든 글자를 차례대로 반복해서 쓴다.

④ **숫자법(數字法)** | 글자의 획에 一 →大, 二→天, 三→泰, 四→憲, 五→梧, 六→奇, 七→純, 八→俊, 구→旭, 十→南과 같은 것이다.
항렬자는 꼭 그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좋겠지만 뜻대로 좋은 글자가 마땅하지 못할 때는 글자의 모양과 흡사한 획이 있으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름자가 한 자일 때는 변[首部에 항렬자를 쓰고, 이름이 두 자로 될 때는 앞 세대(世代)는 항렬자를 위 글자에 썼으면 다음 세대는 아래 글자에 항렬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이름의 종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름을 중요시 해서이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죽

은 후까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명(兒名) | 어린아이의 이름이다.
상류층에서는 성년례를 하고 자(字)를 지어 부르게 될 때부터 이름을 불렀고, 아명은 서민층에서 주로 지었다. 그러나 상류층에서도 출생과 특별한 일이 연계될 때는 그것으로 아명을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율곡(栗谷)선생은 그 어머님이 용(龍)을 보고 낳았으므로 '용을 보았다' 는 뜻인 현룡(見龍)이라 아명을 불렀고, 한글소설 구운몽(九雲夢)을 쓴 서포(西浦)는 배안에서 낳았으므로 아명을 배에서 낳았다는 뜻으로 선생(船生)이라 부른 것과 같은 것이다.

나. 관명(官名, 族譜名, 戶籍名) | 관명은 공식명이다.
요사이는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라허여 호적명이라 하고, 옛날에는 족보에 올리기 때문에 족보명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것을 공식명이라 하는 까닭은 사회활동이나 학적부, 이력서 등에 자기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기 때문이다.
현대 이름이라 말하는 것은 이 관명을 말함이고, 여기에서 서술하는 작명례도 관명을 지어 주는 의식이다.

다. 자(字) | 자는 성년례[冠禮]를 할 때에 관자(冠字)라 해서 지어 주는 별명이다.
공식적인 관명을 존중해서 임금도 신하의 관명을 부르지 않고, 부모도 아들의 관명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른이나 친구들이 부를 수 있는 자(字)를 성년이 되는 의식인 관례에서 지어 주었다. 관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다.

라. 호(號, 雅號) | 호는 아랫사람도 부를 수 있는 별명이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져서 아랫사람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면 "남자는 정호가 있고(外有亭號), 여자는 당호가 있다(內有堂號)" 고 해서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별명을 갖게 된다.
연예인이 갖는 예명(藝名)이나 문인이 갖는 필명(筆名)이 여기에 속하고, 저명인이 갖는 아호나 택호가 이것이다. 여자의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니나 사임당(思任堂), 난설헌(蘭雪軒)과 같이 당호 가졌다.
호는 자기가 짓기도 하고 남이 지어주기도 하는데, 사는 집이나 고장의 이름으로 짓기도 한다. 필자는 아호를 和園이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경계(警戒)하기 위해서 스스로 중용(中庸)을 공부할 때에 지은 것이고, 또 택호(宅號)를 九宜齋라 하는데 이것은 '九宜洞에 있는 집[齋]' 이라는 뜻이다.

마. 시호(諡號) | 시호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생시의 공적이나 학덕을 기려 나라에서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정2품(正二品) 이상이나 공신(功臣)에게 내렸다. 시호에 주로 쓰인 글자는 120자 이었는데 이것을 2자씩 붙여서 짓고 끝에 고(公)자를 붙여서 말한다.
문관(文官)은 문(文)자를 존귀하게 여겼는데 退溪선생이 文純公이고, 栗谷선생이 文成公이고, 沙溪선생이 文元公인 것과 같은 것이다. 무관(武官)은 충(忠)자가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는데 忠武公, 忠壯公, 忠貞公과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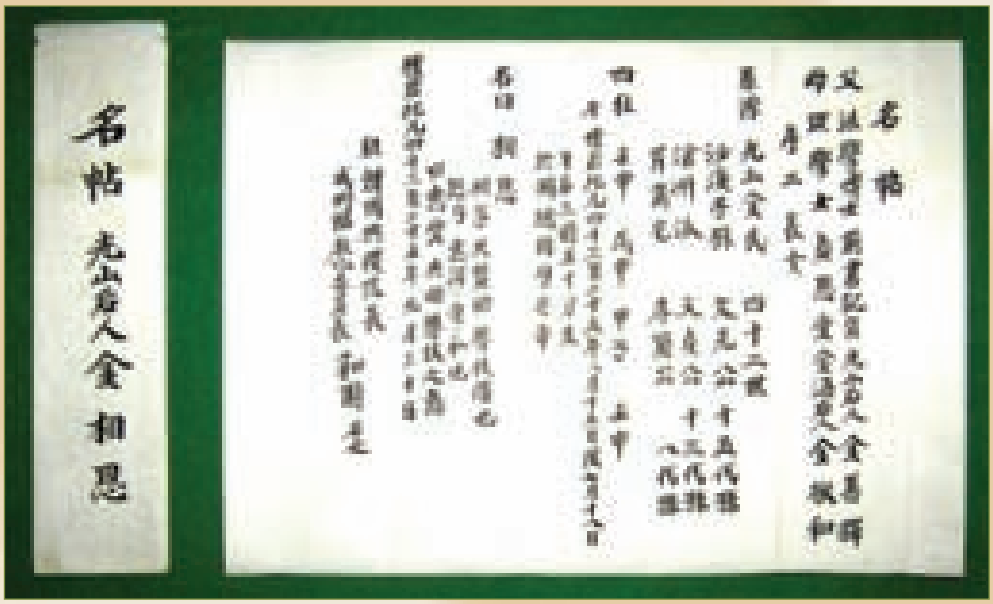
5. 작명례의 방법

가. 명첩(名帖)의 작성 | 옛날에는 없었으나 현대는 모든 의식에 문건(文件)이 있는 것을 선호(選好)하므로 명첩을 만들었다. 이것이 있어야 본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모가 명첩을 내려주며 깨끗한 이름과 자랑스런 명예가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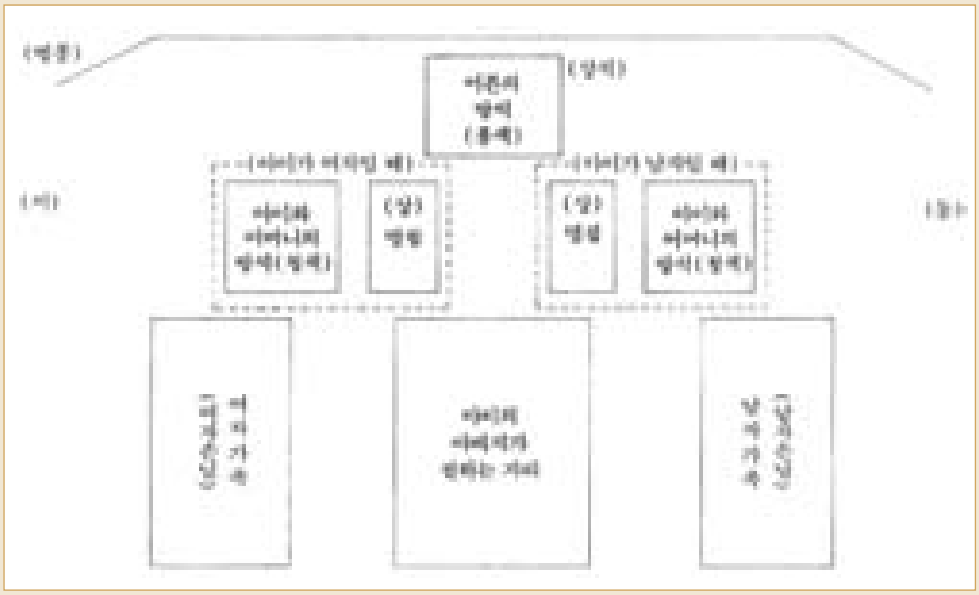
내용 종이를 7칸으로 접는데 1째 칸은 비우고, 2째 칸에 名帖제목과 부모를 쓰고, 3째칸에 系源, 즉 성씨와 조상(뿌리)을 밝히고, 4째 칸에 四柱, 즉 生年月日時를 六甲으로 쓰고 이어서 숫자(數字)로 쓰고 출생지를 쓴다. 5째 칸에 名曰, 이름자를 쓰고 글자의 뜻과 이름 전체의 의미를 밝힌다, 6째 칸에 작명례를 한 때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신분과 이름을 쓴다.
그림의 명첩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안 쓰고 아호(雅號)를 쓴 경우이다.

나. 작명례의 장소의 설치 | 작명례의 의식 장소는 다음 쪽의 그림을 참조해서 기구를 준비하고 설치한다.

다. 작명례의 절차(작명례의 笏記式順) |
① 남자 가족들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북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선다.
② 여자 가족들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북쪽을 상석으로 해서 차례대로 선다.
③ 남녀 손님이 있으면 남녀 가족의 뒤에 위치한다.
④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머리가 남쪽이 되게 안고 아이가 남자면 동쪽의 방석 위에 서쪽을 향하고, 아이가 여자이면 서쪽의 방석 위에 동쪽을 향해 앉는다.
⑤ 아이의 아버지가 남쪽 중앙의 자리 위에 북쪽을 향해 선다.



⑥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줄 어른(할아버지)이 북쪽 중앙의 방석 위에 남쪽을 향해 앉는다.
이 름을 지어 줄 어른이 안 계시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상석을 비워 놓는다. 이 때 이름을 지어 줄 어른(할아버지)과 아이의 아버지는 예복을 갖추는 것이 좋다.
아이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는 평상시 공수를 한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는 경우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의 오른 쪽 옆에 청색 방석을 깔고 남쪽을 향해 앉는다.



⑦ 동쪽과 서쪽의 가족과 손님이 앉는다.
⑧ 아이의 아버지가 상석을 향해 큰절(겹절)을 한다. (상석이 빈자리일 때도 한다)
⑨ 아이의 아버지가 꿇어앉는다.
⑩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이의 아버지가 상석에 남쪽을 향해 편하게 앉는다. (아이의 아버지가 절하는 중앙의 자리를 비워 놓는다)
⑪ 어른이 명첩 봉투에서 명첩을 꺼내서 상 위에 아이가 보기에 편하게 펼쳐 놓는다.
⑫ 어른이 아이가 남자이면 왼손으로 아이의 왼손을 잡고, 아이가 여자이면 오른손으로 아이의 오른손을 잡는다.
⑬ 어른이 명첩의 내용을 읽으며 설명한다.(글을 읽듯이 하지 말고 말로 이르듯이 한다)

1. "아가 지금부터 할애비가 너의 이름을 지어 주겠다."
2. "너의 아비는 ○○이고 너의 어미는 ○○이다." (명첩에 쓴 대로 말한다)
3. "너는 그들 사이에 몇째 아이로써 몇째 아들(딸)이다."
4. "너는 본관 성씨의 몇 세이고, 무슨 파 누구의 몇 대손이다."
5. "너의 사주는 ○○년 ○○월 ○○일 ○○시인데 그것을 숫자로 말하면 단군기원 ○○○○년 ○○월 ○○일 ○○시

ㅇㅇ분에 ㅇㅇ서 태어났다."

6. "너의 이름은 ㅁ자 ㅇ자를 써서 ㅁㅇ라 한다. ㅁ자는 어떤 뜻의 글자이고, ㅇ자는 무슨 뜻의 글자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 ㅁㅇ은 무슨 뜻의 이름이다."

7. "아가 너의 이름은 ㅁㅇ이다"

8. "ㅁㅇ아, 이름자에 걸맞게 훌륭하게 자라서 너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9. "얘들아, ㅁㅇ를 이름자와 같이 훌륭하게 키워라."(아버지가 지을 때는 "ㅁㅇ를 이름자와 같이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⑭ 어른이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고 살펴보며 칭찬한다.

⑮ 아이의 어머니는 명첩을 접어서 봉투에 넣어 상 위에 반듯하게 놓는다.

⑯ 어른은 아이를 할머니에게 준다.

⑰ 할머니는 아이를 칭찬하며 어르고 아이 어머니에게 "수고했다"고 치하하며 아이를 준다.

⑱ 아이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상석(어른)을 향해 큰절(겹절)을 한다.(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상석에서 중앙의 자리로 내려와서 상석을 향해 절한다)

⑲ 어른과 할머니가 아이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

⑳ 가족과 손님들이 아이를 보며 칭찬하고 이름을 칭송한다.

㉑ 작명례가 끝난다.

강동문화원
계간지 '좋은동네' 봄호 발간

봄을 맞아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이 종합문화 계간지 '좋은동네' 봄호를 발간했다.

이번 봄호에는 강동문화원에서 뜻있는 인사들의 후원을 받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후원인사를 모신다는 광고가 담겨 있다.

이원달 문화원장은 '우리 문화원이 1998년 개원 이래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은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동네 모든 이의 책임이라고 생각, 이제 그 수렁에서 헤어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며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하는 문화일구기 후원회를 만들어 문화?예술이 좋은 동네 가족들의 삶에 지혜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펼쳐보고자 한다' 고 후원회 결성 취지를 밝혔다.

'향토사문화연구위원회를 설치에 대한 소식과 제3기 강동문화대학에 대한 소식을 담았다. 이번 문화대학에는 김홍신, 신봉승, 이순재, 유안진, 신영희 등의 명사들이 함께 해 자신들의 삶에 묻어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 외에도 명사칼럼에는 민용태 시인이 '산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의 제목으로 강동과 고덕산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문화초대석에서는 백봉 정순모 선생을 인터뷰해 정갈한 마음과 선비정신으로 걸어온 그의 서예 외길 인생을 돌아봤다.

문화원 광장에서는 2009년 강동문화원 신년인사회, 총회 소식과 지난 3월 다녀온 문화유적답사에 대한 이야기 등 문화원 소식을 담았으며, 학교탐방에서는 세계적 인재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한영외고의 활동을 알아봤다.

'강동예술과의 만남' 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조예가 깊은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했으며, 특히 앞표지에는 소를 끌고 쟁기질하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김춘식 화백의 '일상' 과 함께 권용태 한국문화원연합회 고문의 '봄편지' 라는 시로 봄의 시작을 알렸다.

강동문화원
제3기 문화대학 개강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에서는 4월 15일 13시 30분 강동구민회관 1층 강의실에서 제3기 문화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에서는 70여명의 정원의 훨씬 넘는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자리했으며 김강열 부구청장과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그리고 문화원 이사들이 참석해 제3기 문화대학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원달 문화원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감상중심의 교육의 확대로 지역 문화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왜 문화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번 문화대학을 애써 추진했다' 며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명사들로 이뤄진 강동문화대학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환경 미화를 위한 골목길 벽화 제작, 어버이 사랑 백일장의 개최, 청소년 사생대회 등의 단위행사를 통해 강동구의 다양한 양질의 문화를 일굴 수 있도록 하는 문화운동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 문화일구기 후원회를 만들어 생활문화예술이 삶의 지혜와 활력이 될 수 있는 운동을 펼쳐 보고자 한다' 고 이원장은 이야기했다.

개강식을 끝내고 이어진 개강 특강은 '예술이 인생의 행복을

가꾼다' 라는 강의명으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인간시장', '인간수첩', '대발해' 등 명소설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건국대 석좌교수인 김홍신 씨가 인생 속에 녹아든 예술이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빛내주는가에 대해 그만의 유쾌하고 진중한 강의를 해줌으로써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동대문문화원
tbs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엄마가 신났다' 녹화 출연

교통방송(tbs tv)에서는 서울시의 여행(女幸-여자가 행복한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엄마가 신났다' 를 지난 4월 23일 동대문문화원(원장 김영섭)에서 녹화하였다.

동대문문화원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포터 정진수의 진행으로 각종 게임과 퀴즈 등 여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동대문문화원에서는 동대문구와 문화원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 프로그램의 녹화를 유치하였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영섭 동대문문화원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는 물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전하며 문화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방송은 5월4일(월)오전 9시 15분부터 왕종근, 정연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엄마가 신났다' 시간 중에 '출동! 일자리 부르릉 버스' 코너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문경문화원
'문경문화원 42년사' 펴낸다 - 문경문화원 2009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2009년 4월 15일 11시 문경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경문화원이 1967년 11월 창립한 이후, 42년 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문화원의 역사를 한권의 책으로 펴내 미래 문화원 발전의 나침반으로 삼기로 의결했다.

문경문화원은 42년의 역사 동안 향토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키고 가꾸어 왔고, 이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종철 초대원장, 김동규 2대 원장, 조윤식 3대 원장, 장운석 4대 원장을 거치는 10년 동안 초창기 문화원의 주춧돌을 놓아왔고, 5대 원장으로 취임한 남봉환 원장 시절인 1975년부터 10년 동안,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5년 문경군의 군세가 한창 늘어나던 시기에는 점촌시가 분리 되면서 '점촌문경문화원' 으로 문화원은 지역 통합의 구심체로 남아있었으며, 8대 원장으로 이창교 원장으로 취임하여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창교 원장은 1986년에 향토종합지 '문경대관' 을 편찬하고, 1987년에는 '향토사연구소' 를 설치하였으며, '학도문화예술대회' 창설, '시립합창단' 창단, '경상감사 도임행차' 재현 등 18년 동안 문경문화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는 공적을 쌓았다.

2003년 14대 원장으로 취임한 현재 채대진 원장은, 이런 바탕 위에서 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다각도로 넓혀왔고, 문화관광사업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문경새재과거길달빛사랑여행' 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관광사업을 전개하고, '결혼이주여성문화체험' 유치, '실버문화학교' 유치 등 여러 분야로 문화원의 사업영역을 넓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포천문화원
전국한시백일장 성황리에 개최 - 전국의 한학자 250여 명 참여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한 제23회 반월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이 4월 30일 포천종합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한시백일장에는 시 단위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임.회원, 전국의 한학자 및 한시동호인 등 25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중암 김평묵 선생 학덕' 을 시제로 하여 한시 경연을 벌였다.

김평묵 선생은 포천시 가산면 출신으로 화서 이항로 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였으며, 그 학풍을 이은 위정척사 사상의 실천가였다. 선생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봉에서 활약하였다.

이날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비의 고장인 우리 포천에서 전국의 한시 애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시백일장을 개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중암 김평묵 선생의 학문과 덕망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시를 지어주길 바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중암 김평묵 선생 자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형은 칠언율시, 압운은 明, 成, 聲, 英, 名으로 했으며, 고선위원은 사계권위자를 초빙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했으며, 전국의 유림 및 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문 향상의 계기

를 마련했다.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강원도 원주시에서 참가한 강육원 씨가 영예의 장원을 수상하였으며,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0명, 가작 20명 등 다수 입상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령자로 참가해주신 정규창님(89)과 정병유님(87)에게 노익장상을 전달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이날 출품된 작품들을 모아 시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제23회 반월문화제

포천문화원 (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한 제23회 반월문화제가 26일 포천종합실내체육관 및 종합 운동장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각급 기관장을 비롯하여 각급학교장, 문화예술계관계자 등 3천5백여 명의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구축 및 창작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화합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창작예술 표현을 통한 자질향상 등 창의적인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오전부터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열이 어느 해보다 더욱 높아 졌음을 보여 주었다.
대회장인 이만구 원장은 반월문화제는 회를 거듭 할수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올해는 더욱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이 끝난 후 포천문화원 문화학교 사물놀이반의 공연과 사군자, 한국화, 수채화, 서각, 전각, 파스텔화반의 작품전시와 함께 본 행사로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 부분별로 나눠서 기량을 겨루었으며, 특히 체육관 앞 광장에서는 참여자를 위한 투호, 도자기 공예, 페이스페인팅, 좋은 글 써주기, 전통 목각판 시연 및 서각체험, 비즈공예, 윷놀이, 제기차기, 연 만들기 등 11개 부문의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끌었다.
한편 접수된 작품은 문화예술계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 7월 4일(토)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시상식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수상 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구리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향토문화조사활동과 탁본전시회 개최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는 작년에 제2회 건원학술제 "조선왕조의 문화유산과 왕릉금석문"를 통해 학술제 및 조선왕릉 탁본전시회를 개최하여 동구릉과 조선 왕조의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가치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경기도무형문화재인 갈매 도당굿, 온달장군추모제향 등을 실시하여 지역향토에 대해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금석문탁본사업 및 사노동회다지 등 향토조사활동을 통해 지역변천사를 조사하고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릉과 아차산, 망우 묘역의 위인들(한용운, 방정환, 오세창 등)에 대한 현장학습용 워크북도 발행한다.

구리문화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둔 동구릉, - 역사적 가치 재조명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조선의 대표적인 왕릉 동구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6월말 있을 예정이다. 이에 〈2009 동구릉 건원문화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축하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제 19회 구리시민백일장을 동구릉(원릉)에서 개최한다. 구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시민 백일장으로 매년 2,000여명이 글짓기, 그리기, 사진, 서예, 비디오에 참여한다. 5월 27일(수)에 개최되는 이번 백일장은 향토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리며 시민의 잠재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즈음하여 구리시, 전주이씨 대동 종약원과 공동으로 어가행렬 및 태조이성계 친향기신제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행차코스는 구리시체육관에서 출발하여 동구릉에 도착하며, 행차내용은 취타대. 풍물. 어가. 세자. 문무백관. 병졸 등 반차도 45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부대행사로는 동구릉 사진전, 탁본전시회,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열어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원 홍보단 출범하여 소식지 매월 발행

구리문화원은 문화원홍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문화원 최초로 홍보단을 출범하였다. 홍보단은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고 게시판 및 자료실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호부터 소식지는 홍보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로 엮어지며 향후 웹진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식지 내용은 구리시 주요 소식, 답사 및 문화강좌 탐방, '그때 그시절 구리이야기(과거 구리 생활모습)' , 우리 고장 숨겨진 역사인물의 발자취를 찾아서 등으로 담겨져 있으며 문화학교 소개 등이 있어, 향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소식지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대덕문화원

가족인형극 '나의 열 살'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찾아가는 문화행사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헌)에서는 2009년 3월 29일 대덕문화원 회원가족을 초청, 가족인형극 '나의 열 살' 을 공연하였다. 초등하교 3학년인 인공이의 시험점수를 모티브로 제작된 본 연극은 인형과 연기자가 함께 어우러진 인형극으로 볼거리와 함

께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09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헌)에서는 2009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3월 30일(월)「노인일자리사업의 향후 전망과 사업기본방향 및 사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을 주제로 남상현팀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이 강의를 하였고, 3월 31(화)「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임춘식교수(한남대학교), 「사업의 참여자로써의 근무자세 및 태도」로 하은숙선생(국제문화교류단 단장)이 강의를 하였다.

대덕문화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지역의 문화소외자들을 찾아 공연을 진행하는 실버극단〈다솜바리〉 27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통문화 예술, 놀이 등을 교육하고 있는 대덕새싹문화탐험대의〈실버멘토〉 20명, 관내작은도서관으로 배치되어 도서대출, 도서정리 등 도서관련보조업무를 지원하고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옛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진행하는 대덕작은도서관〈실버도우미〉10명, 친환경적인 소재로 생활목공예를 제작하고 장승, 솟대, 농작물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행복주걱만들다〈장승공방〉 20명 등 총 77명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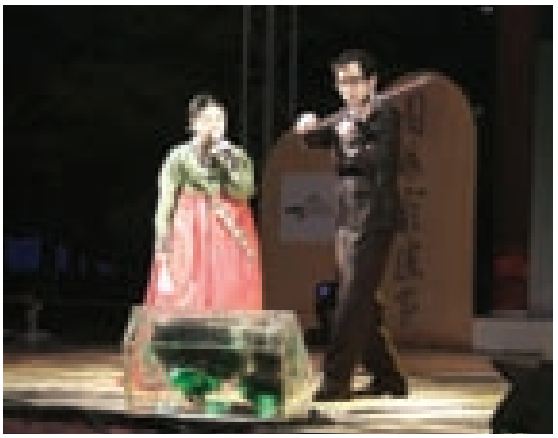
제20회 신탄진봄꽃제 '대덕학 퀴즈대회 개최'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헌)에서는 지난 4월 3일(금)~4월 5일(일), kt&g 제조창에서 제20회 신탄진봄꽃제을 개최하였다. '봄의 빛 생명의 소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봄꽃음악회, 미용뷰티쇼, 문화 및 민속놀이 체험, 가족놀이마당, 전국농악경연대회, 대덕학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덕학 퀴즈대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인물, 정신, 등에 관하여 주민들이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대덕바로알기-대덕학 운동〉을 널리 알리고

자 진행되어 4, 5일 이틀 동안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대덕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대덕문화원
제14회 동춘당 문화제 '전통과 현대의 만남'

대덕문화원(원장 송성헌)에서는 지난 4월 24일(토)~4월 25일(일) 조선 예학의 대가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을 기리는 제14회 동춘당 문화제를 동춘당 근린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숭모제례, 경전강독대회, 문정공시호봉안행렬, 전국휘호대회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4일 개막공연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명창 안숙선과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협연 등 관람객들에게 한 층 업그레이드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했다.

※ 정정 | 우리문화 4월호 문화원이모저모에서 대덕문화원 원고 내용이 잘못되어 다시 게재합니다.

김해문화원
문화가족 문화탐방

봄을 맞이하여 김해문화원에서 09년 2차 문화가족 문화탐방을 4월 23일(목)에 가졌다. 문화원에서 집결하여 남해 일원을 답사했으며 금산 보리암, 용문사 다랭이마을, 상주 해수욕장 등을 돌아보았다.

울산중구문화원
사무실 이전, 주소변경

변경 전	변경 후
(681-819)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12-19.	(681-812)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53-1. 3층

2009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명단

구분	지역	문화원	프로그램명
1	서울	서울중구	서울 중구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2		광진	친환경-'미쁜' 천연비누와 화장품 만들기
3		동대문	동대문 실버 중창단-왕언니 클럽
4		은평	은평실버 민요 합창단
5		마포	실버VJ미디어 영상학교 3기 운영
6		강서	동화책 할아버지/할머니
7		영등포	해야 솟아라, 2009 희망의 해야 솟아라
8		송파	실버 카메라 - 세상에 말을 걸다!
9	부산	북구낙동	강따라 노래따라 "낙동강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
10		금정	닥종이 인형
11		부산강서	울어라 색소폰아
12		연제	희망의 은빛 예술단
13		기장	기장실버 은빛 천연염색반
14		부산진	꿈을 빚는 도자기세상
15		부산남구	실버 통기타 앙상블
16	대구	동구팔공	청춘(靑春)을 돌려다오
17		서구	천왕메기야, 내 청춘을 돌려다오
18		달성	노래, 민요 수업
19	인천	부평	실버들의 빛 그림자 인형극-은빛여울
20		강화	생태문화체험 실버 리더 양성과정
21	광주	동구	광주실버악단 단원양성 및 공연기획
22		서구	3대가 함께 하는 어르신 배비장
23		남구	한지사랑방에 마실 간 이야기
24		북구	은빛소리에 울리는 남도바이러스
25		광산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는 광산고을 옛이야기 교실
26	대전	동구	동구에 오면 전통문화 '한 스타일' 이 보여요
27		중구	여섯줄 통기타와 은빛 하모니카 연주여행
28		서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비한 꽃누르미'
29		유성	달려라 실버포장마차
30		대덕	연꽃마을 연축골 어르신 "소망등" 으로 빛나다
31	울산	중구	울산 매귀악 풍물단 양성
32		남구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공예 희망제작소
33		북구	울산쇠부리놀이 실버단원 양성
34	경기	의정부	Silver Of Rock 4 악극-음악으로 인생을 말하다
35		안양	어린이 전통문화 실버 보조강사 양성
36		부천	"따르릉" 실버동요합창단
37		광명	광명의 오래된 미래
38		평택	명장의 손으로 거듭나는 '솟대와 장승'
39		안산	아코디언으로 수놓는 은빛추억
40		과천	은빛사랑매듭
41		구리	전래놀이연구회
42		시흥	시흥 그린밴드
43		군포	명사초청 '전설의 군포' 1탄 '감투봉명당싸움' 단편영화만들기
44		의왕	의왕 은빛 아코디언 연주단
45		하남	사랑의 약손 봉사대
46		용인	실버세대와 함께하는 전통 한시(漢詩)교실
47		이천	도자 명장과 함께 실버도예가 양성
48		광주	너른고을 실버와 함께하는 "꼭 알아야 할 전통의례"
49		양주	찾아가는 양주의 옛소리
50		화성	청희문을 만들어가는 실버 무지개극단
51		연천	2009년도 실버문화학교 개소(소고)
52		포천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단
53		가평	새싹 실버한국무용
54		양평	문화재 배아미 비누공방
55	강원	춘천	짚으로 엮어가는 실버문화
56		원주	실버세대는 꽃향기를 싣고
57		강릉	하슬라 챔버오케스트라
58		동해	지역실버가 기획하는 2009 동해천년학체험축제!
59		속초	실버예술단 아바이,아마이의 가야금 연주단 양성
60		홍천	어르신 실버 인형극단 양성
61		횡성	사랑을 실은 우리춤 「장수춤」 문화봉사단 양성
62		평창	평창아라리 보존 · 전승(곤드레 딱죽이 인간문화재)
63		철원	철원 현무암 보존 · 전승
64		양구	실버 예술단 양성
65		양양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연어 이야기
66	충북	청주	전통 장문화 알리미 양성교육
67		청원	명품세상-청원 갖바치
68		보은	동화로 전승되는 우리이야기
69		진천	검은 도화지에 무지개를
70		증평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야생초 이야기

71	충남	공주	실버문화 공연단 〈논두렁 밭두렁〉 운영
72		대천	풍수지리 수맥 지도자반(고급과정)
73		온양	지푸라기로 엮은 실버세상
74		서산	실버 전통무용단
75		논산	전통 색한지에 담긴 실버공예가의 꿈
76		부여	전통민속놀이 지도사 양성 교육
77		태안	태안문화원 실버 마술단
78		당진	언제나 청춘 '늘 푸른 악단'
79		아우내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80	전북	전주	은빛 명창들의 단가 맛들이기
81		군산	얼쑤 은빛 우리 무용
82		익산	내 손안의 작은세상
83		정읍	샘골 은빛종합연예단원 양성 및 연예단 운영
84		남원	남원 실버음악단 '아름다운 세상' 비전형성사업
85		김제	마술과 함께 신나는 인생 만들기
86		고창	우리가락 얼쑤 얼쑤!
87		부안	할머니 반짇고리
88	전남	목포	실버남도소리 공연단 양성
89		여수	극단 "여수의 향기"
90		나주	재미난 이야기로 만드는 토우 세상
91		담양	우도농악 전승 및 청죽골 실버 풍물단 (구정놀이 재현)
92		고흥	고흥문굿 전승 실버풍물단
93		보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우리 춤 공연단 구성
94		화순	천상의 소리 실버 오카리나 앙상블
95		장흥	정남진 실버민요합창단 육성
96		강진	"풍물굿 "강진인의 긍지로 우리문화 꽃피우자
97		해남	'3색, 실버놀이단'
98		영암	풍수지리 실버문화 만들기
99		함평	함평천지 에코 도예가
100		영광	청흥둥당 굴비골 놀보네 대박났네 "아!샌님 복들어가요福"
101		완도	섬 사랑 실버 신명 패
102		진도	옥주골 공예교실
103		신안	"신안 섬드리 민요합창단" 육성사업
104	경북	포항	두드려라! 청춘이 열린다! 난타
105		경주	"사진으로 담아내는 우리고장 이야기"
106		김천	잊혀진 김천상여소리 여행
107		안동	전통문화를 이끄는 실버들의 민속놀이도구 만들기
108		영천	별빛 촌 실버 풍선 교실
109		문경	문경소리공연단 운영
110		경산	실버 건강 체조 교실
111		군위	사랑의 지팡이 만들기
112		의성	할머니들의 가락장구 공연단
113		영덕	'동해 어부들의 소리' 재연
114		청도	토속민요 찾아 즐기는 소리꾼양성
115		고령	가얏고 실버 가야금 연주단
116		칠곡	아리랑 장수춤 체조단 양성교육
117		예천	예천의 소리를 찾아서
118		봉화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그룹사운드 〈즐거운 인생〉!
119		울진	울진의 전래민요 전승단
120	경남	창원	실내인테리어 공예제작 교실
121		마산	마산문화 지킴이 실버 영상제작단 "生을 담고 추억을담는 실버들"
122		진주	「창작뮤지컬」 "충절의 고장 진주라 천리길"
123		진해	「창작뮤지컬」 "소중한 나의 몸 3" - 이 싹이 노란 녀석아!
124		통영	통영 나전칠기 제작과정 (칠과 자개와 함께하는 통영 실버)
125		사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간 까닭
126		김해	김해 이바구 연주단
127		밀양	우리소리 우리 몸짓
128		거제	섬마을 실버 한국무용단의 사랑의 몸짓
129		양산	제2기 양산실버반키(VANKY)해설사양성
130		의령	짚풀로 건전한 공예품 생산
131		함안	전통문화 지킴이 함안 화천농악단
132		남해	동고동락을 외치다
133		함양	함양 할매들의 솜씨방
134		거창	실버청춘연극단 양성 및 공연
135		합천	대야성 실버 농악단 양성
136	제주	제주	전통 제주 젓갈류 만들기 체험 및 교육
137		서귀포	전통문화체험 짚풀세상으로

2009년 제2차 이사회

지난 4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의 수안보상록호텔에서 2009년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이사 22명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됐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사회의 주요안건과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또한 임원의 노고에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순서에 따라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그 다음날에는 충주시 소재 문화유적을 돌아보았다.

제2차이사회-결과

구 분	부의 안건	승인여부
제1호 안건	회원 가입 승인의 건	승인
제2호 안건	한국문화원연합회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승인
제3호 안건	한국문화원연합회 시 · 도지회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승인 (일부내용 조정)
제4호 안건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승인
제5호 안건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변경의 건	승인 (일부내용 조정)
제6호 안건	지방문화원 정관(표준) 변경의 건	승인
제7호 안건	2009년 임시총회 개최의 건	승인
기 타 사 항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토의	보고
	「문화人, 문화울림」계획(안)	보고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방안	보고

2009년도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 사업 실시

연합회는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향토사 대중화 사업 일환으로 2009년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론과 체험 교육을 병행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사업은 4대강 유역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 4대강과 인접해 있는 문화원만을 대상으로 사업공고를 실시하여 사업 대상 문화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실시할 교육 강좌는 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참조하여 지역의 사정에 맞게 기획하면 된다. 또한 사업에는 반드시 관내 교사가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교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금년도는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과물을 토대로 종합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글과 그림 등으로 표현한 자료 등을 모아 성과보고서를 제작할 것이다.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공고 마감은 5월 8일이었으며, 5월 중순에 사업 대상 문화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3월부터 다문화 사업 20개 문화원에 지원

최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급속한 증가 등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 고취를 위해 한국어 및 문화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20개 지방 문화원은 대학의 한국어 전문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맺고 '한국어+한국문화 '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사업기간 | 2009년 3월~10월

참여문화원 | 부산금정문화원 · 부산진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남구문화원 · 대덕문화원 · 시흥문화원 · 평택문화원 · 포천문화원 · 여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평창문화원 · 홍천문화원 · 진천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부안문화원 · 완주문화원 · 강진문화원 · 사천문화원 · 남해문화원(이상 20개원)

문화人, 문화울림 추진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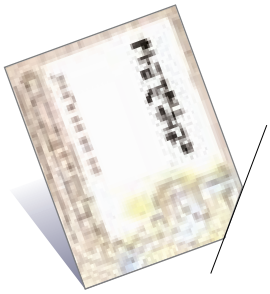
지난 5월 8일(금) 10시,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 6명과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이기 사무총장, 장상호 총무국장, 송은옥 과장 등이 모여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문화人, 문화울림 축제의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10월 14일(수)에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릴 계획이며 지방문화원 및 문화인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5, 6월에는 행사 방향 설정과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 문화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7, 8월에는 세부계획 마련과 문화원 안내, 9월에는 대한민국문화원상 공모 및 심사와 홍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진위원으로는 표재순(예술지원경영센터 이사장) 김찬형(주)제일기획 상무) 류재현(문화기획 상상공장 대표) 윤성진(안양대 공연예술학과 겸임교수) 정길남(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정국(문화기획가) 씨가 있다.

동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에 박광무 부임

신 간 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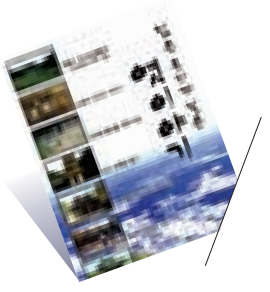


구미설화집 산수화를 부른 열녀 열창
구미문화원 발행

구미문화원(원장 김교승)에서 구미의 옛 이야기들을 모아 구미설화집을 펴냈다. 김교승 구미문화원장은 구미에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비록 다 실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 실린 내용으로도 많은 시민에게 소중한 추억을 찾아 줄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화와 전설이 깃든 금오산, 박 대통령을 낳은 구미의 이야기, 비봉산에 안긴 선산의 전설, 낙동강을 품은 고아, 해평의 이야기 등 총 다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장마다 사진자료와 함께 구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판형이 문고판으로 만들어져 손에 자주 닿는 곳에 놓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책이다.

國譯 習齋先生文集 4
춘천문화원 발행

2005년 국역 습재선생문집 1권을 출간한 이래 매년 꾸준히 번역하여 발행하고 있는 춘천문화원의 네 번째 습재선생문집이다. 춘천의 의병장이자, 학자였던 습재의 문집을 번역하고 있는 것. 이번 국역집은 존의(存疑)부분으로 선생의 사상에 대해 잘 살펴볼 수 있는 글이 실려있다. 이대근 춘천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이 존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의심나는 부분을 적어둔다는 의미겠으나 그처럼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닌 습재 선생이 깊이 연구하고 실천궁행(實踐窮行)했던 유교경전의 덕목과 성리학 사상을 풀이해 놓은 부분이며 주자(朱子)를 존승하고 성재(省齋) 선생의 학설을 잘 계승하는 논설을 피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교나 성리학에 큰 인지를 갖고 잊지 못해도 맥락을 굳이 두지 않고 문득 아무 곳이나 펼쳐두고 읽어도 책의 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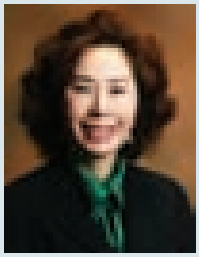
젊은 우리가 찾은 옛이야기
구미문화원 발행

'향토문화대중화 사업' 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모았던 청소년들의 구슬땀이 맺혀 있는 이야기집이다. 구술자를 찾아내 직접 이야기를 각색하여 모은 이야기들로, 원흥사 규스님과 이규보의 2박 3일, 도중리 조도래 이야기,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 선산 남매탑 쌓기, 내 아들 재보와 지아비 야은, 향랑, 산유화로 지다, 봉곡동 이야기 등 일곱 가지 이야기 마당이 펼쳐진다. 김교승 구미문화원장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펴낸말에서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소중한 체험으로 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간중간 수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후기도 백미다.

원 장 동 정

영등포문화원장 **홍상기 씨**

영등포문화원은 정기총회를 통해 제4대 원장으로 홍상기(65)씨를 선출했다. 홍 원장은 '영광과 기쁨보다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고 말하며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손으로 만져 챙겨보고 몸으로 실천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덧붙여 날로 발전해가는 영등포가 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앞서는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각보다는 실천으로 발로 뛰는 원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홍 원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디지털창작 미술협회장, 금영상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구수성문화원장 **박순복 씨**

대구 수성문화원은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제3대 문화원장에 박순복(52)씨를 추대했다. 2009년 4월 22일 수요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원장은 '수성문화원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앞에 훌륭하신 분들이 잘 해오셨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 는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향상시키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는 의지를 밝혔으며 '문화동지의 협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박 원장은 주)티파니 라이팅 대표이사로 있으며 수성경찰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대구지방경찰청, 양궁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전국 향토문화공모전
제24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4.1▶9.30
국내 유일한 24년 전통의
향토사 학술연구 공모전
2009
제24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공모 요강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 부문
공모 기간 및 수상작 선정 발표
응모자격
원고 분량 및 작성법
제출 서류 및 접수
시상내역